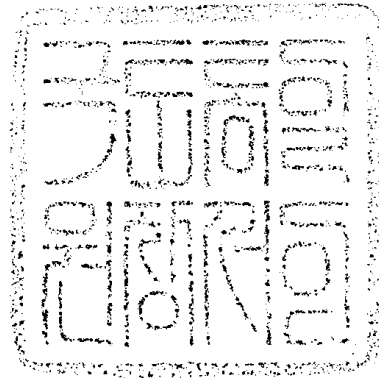


- I. 이 冊字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蘇 聯 의 對 東 北 亞 心 像

Soviet Strategy in The Asian Third World



研究執筆責任：金 裕 南

(略歷) 한국外國語大學 러시아語科 3년수료(1961)  
샌프란시스코 州立大學校 國際政治學科 學士(1965)  
샌프란시스코 州立大學校 國際政治學 碩士(1968)  
캘리포니아(버클리) 州立大學校 東北亞研究部수료  
(1970)  
北텍사스 州立大學校 政治學博士(1973)  
外交安保研究院 共產圈研究部 研究教授(1978~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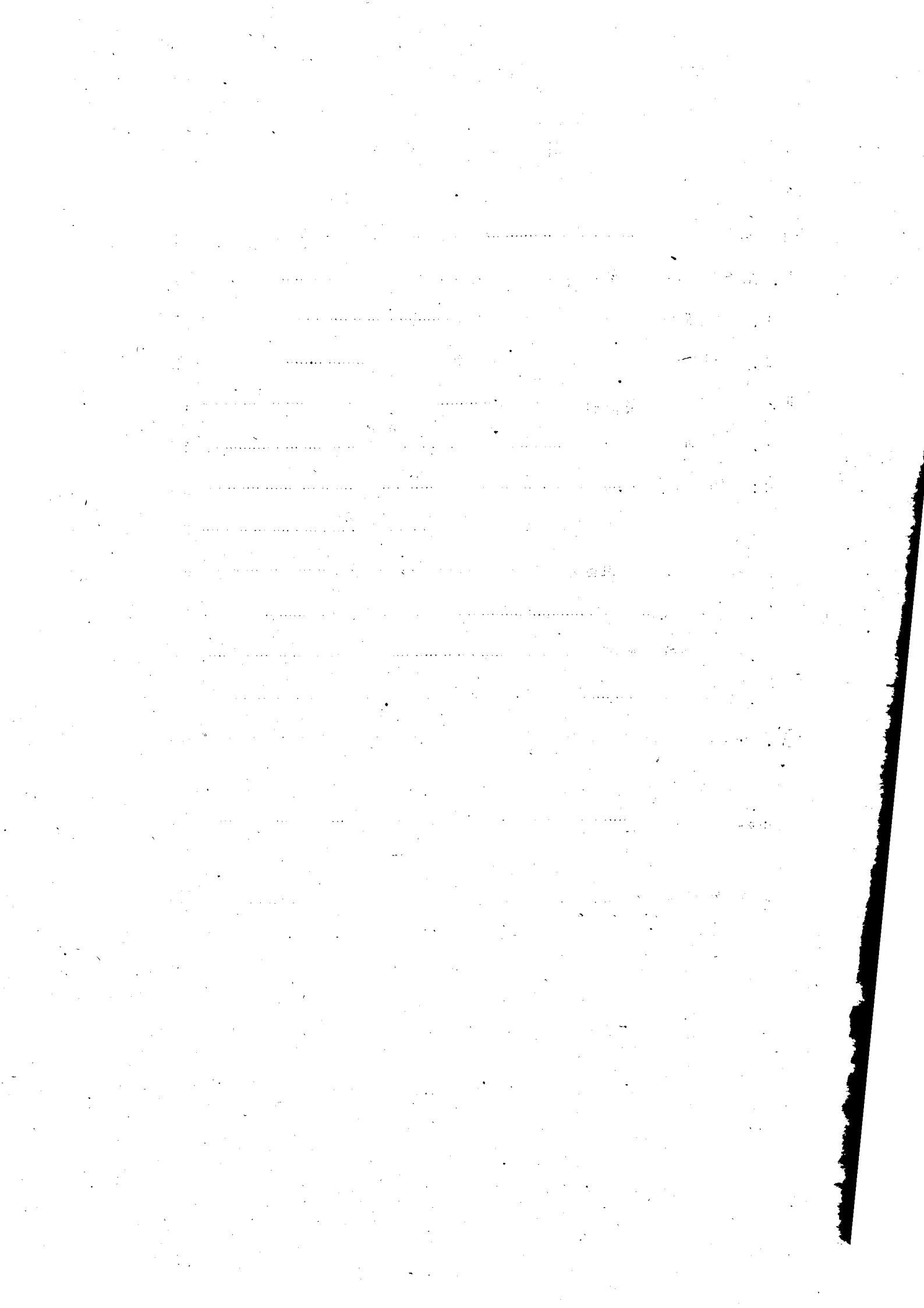
刊 行 責 任：呂 錫 昊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 要 約 .....	1
I. 모스크바의 心像 .....	7
1. 問題意識 .....	7
2. 울란·바토르 / 평양 / 서울 / 동경 .....	9
II. 亞細亞集團安保體制 .....	17
1. 目的과 形態 .....	17
2. 問題點 .....	25
3. 새로운 國際關係 .....	30
III. 海洋力 및 極東艦隊 .....	39
1. 艦隊外交 .....	39
2. 海洋力의 評価 .....	46
3. 極東艦隊 .....	53
IV. 蘇聯의 對東北亞 展望 .....	63
* 脚 註 .....	67
* 英文要約 .....	77



## < 要 約 >

###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

本研究는 蘇聯의 對東北亞政策을 主題別로 검토한 서술적 研究 論文이다. 蘇聯의 東北亞關心事를 ① 모스크바가 1969年부터 제의해온 이론마 " 亞細亞集團安保體制 " 의 전모가 蘇聯의 政治的 세스처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고 보며 ② 이를 軍事的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蘇聯의 極東艦隊 (一名 太平洋艦隊) 라는 전제하에서 이들의 構造的 着想과 發展過程을 蘇聯의 視角에서 다루었다.

이와같은 두가지의 政策的 骨格을 東北亞의 勢力關係에서 출발점 을 찾고져 第1章에서 蒙古, 北韓, 韓國 그리고 日本에게 취하고 있는 蘇聯의 政策論調를 여러가지 類型으로 分析한 것이다. 即 蘇聯의 問題意識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分析的 視角을 찾아서 했던 것이다. 그리고 第II章에서는 本文에서 다루어진 主題들을 綜合的으로 평가 한다는 意味에서 蘇聯의 對東北亞 展望을 突出해 보았다.

### < 亞細亞集團安保體制 >

中·蘇紛爭이 蘇聯의 對亞細亞政策變化를 중용하고 있던 1960年 代末에 처음으로 提議된 아세아集團安保體制는 지난 十餘年間 制度

的 윤락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構想의 根源이 社会主义 兄弟국이었던 中共이 亞細亞에서의 反蘇勢力으로 登場함에 따라 蘇聯은 미처 굳혀놓지 못한 亞細亞勢力圈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殘存하는 亞細亞 社会主义國과 기타 非好戰的인 非共產國家들을 포섭하여 우선 中共을 戰略的으로 격리시키고 장기적으로는 脫亞細亞政策을 추구하려는 美國을 귀따라서 亞細亞에로의 地位를 確保하려 했던 이른바 蘇聯의 平和善隣 政策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70年度 中盤부터 蘇聯의 平和攻勢는 亞細亞國家 自身들 간의 独立的 그리고 융통성있는 安保政策에 의해 本意圖를 잃게 되고 때를 같이하여 베트남戰 以後의 동남아세아가 親蘇勢로 造作됨에 따라 東北亞의 對蘇視角은 더욱 회의를 품게 되었고 아울러서 쿠바와 共產베트남을 利用한 蘇聯의 代理戰爭은 蘇聯의 本心을 의심하게 함으로서 1970年代末 현재 亞細亞集團安保는 蘇聯의 失敗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 <海洋力과 極東艦隊>

蘇聯의 集團安保構想이 失敗라고 한다면 이는 政治的 分野에서의 不進을 말하는 것이나 軍事的 外交面에서는 蘇聯은 많은 成功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蘇聯의 海洋力은 모든 第3世界지역에서 이른바 艦隊外交의 威力을 과시했고 海軍을 통한 第3

世界侵透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겠다.

예를 든다면 蘇聯은 亞細亞集團安保를 주장하면서 印度洋을 “平和地帶化” 하도록 많은 關係國家들과 雙務條約을 추진해 왔으나 政治的 勝利를 얻지 못함으로서 이에 대한 軍事的 行動은 印度洋에 定期的으로 蘇聯의 極東艦隊를 고정배치함으로서 蘇聯의 海洋力을 과시했던 것이다. 亞細亞의 主力을 이루고 있는 極東艦隊는 이를 補助하는 商船團과 魚船團의 戰略的 지원하에 이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印度洋에 이르는 全海上에서 美國의 海洋力과 버금하게 된 것이다.

蘇聯의 極東艦隊는 海上戰鬥力에 있어서 아직도 美國의 7艦隊를 능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實戰을 除外한 모든 艦隊業務를 수행하는데는 充分하다는 것이다. 平和時의 艦隊業務도 關係海上에 週期的으로 出現함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蘇聯의 關心을 적극적으로 表現하는 일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極東艦隊는 東支那海上과 印度洋 그리고 아덴灣에 출능하고 있다. 또한 平和時의 海上路確保는 海軍의 主役割인데 蘇聯의 極東艦隊는 이미 日本近海와 韓國의 東海上을 確保할 만큼 그 活動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 하겠다.

### <蘇聯의 對東北亞 展望>

蘇聯은 反中共勢力圈을 形成하기 위한 여러가지 政策的 構想을 개발할 수 없는 環境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中共이 1970年代 中盤부터 美國과 日本에게 協力과 交流를 통해 이른바 反蘇聯 合戰線을 構築하려는 움직임에 反하여 蘇聯은 이러한 中共의 戰略에 対応하는 새로운 東北亞 "勢力關係"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뚜렷한 目的意識을 가진 蘇聯은 中共을 제외한 모든 東北亞 國家들과 必要的 接觸과 協力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겠다.

蒙古와 北韓은 蘇聯에게 있어서 反中共勢力圈을 形成하는데 매우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集團安保體制問題를 完全히 단념한 蘇聯이 아니다. 蒙古는 政治·經濟·軍事面에서 親中共化할 수 없는 體制的 固定性을 가지고 있다. 오랜동안 蒙古는 蘇聯의 極東基地로 굳혀져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生存은 親蘇的 經綸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蒙古는 蘇聯의 衛星國으로서 亞細亞集團安保問題를 支持하는 聲援國으로 登場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自彙的 政權維持가 親蘇만으로 어렵게된 環境이기 때문에 蘇聯의 反中共勢力圈의 前提가 될 集團安保制를 손쉽게 支持할 수 없이 비교적 융복성있는 路線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과 日本은 蘇聯의 集團安保體制에 根本적으로 無關心하다. 이 두나라는 이미 美國과의 集團安保的 協力體制에서 自國의 安保



를 確立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蘇聯이 韓國과 日本에게 뚜렷한 安保的 代案을 제시할 수 없는限 蘇聯의 接近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反面에 蘇聯의 極東艦隊는 現實的으로 蒙古와 北韓을 必要로하기 보다는 韓國과 日本의 地政學的 協力을 要求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母港을 둔 이 極東艦隊는 日本과 韓國의 近海를 通過하지 않고서는 本然의 業務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軍事的 必要의 關係를 생각하면 蘇聯의 立場은 韓國과 日本이 非軍事的 對蘇關係改善에서 보다 폭넓은 容通성을 바라고 있다고 하겠다. 卽 美國安保體制에 대한 積極的인 協力이 아니더라도 蘇聯은 韓國과 日本이 對蘇姿勢에서 어떠한 變化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蘇聯의 對韓國論調는 높은 頻度와 깊은 內容을 취급하면서 현실적으로는 否定的이나, 肯定的變化에로의 暗示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기

結論的으로 韓國의 立場에서 蘇聯의 對韓視角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생각할 수 있겠다:

- (1) 蘇聯은 反中共勢力圈의 形成을 위해서 北韓과 中共에 대하여 이른바 「韓國카드」를 생각하며;
- (2) 蘇聯의 集團安保體制는 韓。蘇關係를 蘇聯의 이니시에티브 ( Initiative )로 改善할 수 있는 政策的 原則을 提供하고 있으며;

(3) 韓國의 海軍과 空軍力이 蘇聯의 極東艦隊의 行動圈을 局地的  
으로라도 制動할 수 있게 될때 蘇聯의 對韓關心度는 可否間  
크게 變할 것으로 豫측된다.

## I. 모스크바의 心像

### 1. 問題意識

本 研究가 試圖하는 바는 蘇聯의 對東北亞政策中에서 두가지 代表的인 政策이슈인 ① 政治的 外交제스처인 亞細亞集團安保體制과 ② 軍事的 外交姿勢인 蘇聯의 海洋力 極東政策을 敘述하려고 한다.

研究의 視角은 蘇聯이 東北亞에서 對中共戰略을 構築하는 것이 最優先的인 政策目標라고 가정한 나머지 이와같은 反中共勢力圈을 형성하기 위한 蒙古, 北韓, 韓國, 그리고 日本에 對한 모스크바의 心像은 무엇이 겠는가 하는것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問題意識을 提示하면서 本 研究가 取하고 있는 接近方法과 資料의 處理問題等を 밝히려 한다.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을 分析하는 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다. 이 中에서도 가장 손쉽게 利用되고 있는 方法이 記錄된 政策文獻을 主題, 頻度, 強度 等으로 分類하여 제기된 이슈에 特定한 意味를 부여하는 이른바 內容分析方法 (Content Analysis) ①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은 充分한 一次資料는 물론 데이터의 連續性과 이를 證明해 주고 있는 補充資料를 要求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本 研究는 이러한 前提的 內容分析 條件이 불충분하여 次善의 接近方法인 테마 接近方法 (Themastic Approach) ②을 利用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即 本 研究는 ① “亞細亞集團安保體制”와 ② “海洋力 및 極東

艦隊”라고 하는 두개의 名題構造를 提示하면서 이곳에서는 分析的 問題意識을 밝힌다.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에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政治的 外交이슈로 登場하면서 蘇聯의 對東北亞政策에 變化를 주어왔다고 보겠다. 또한 蘇聯은 傳統的인 유라시아勢力으로서 大陸勢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 海洋勢에 도전과 함께 亞細亞勢力에로의 발돋움에서 登場한 極東艦隊는 蘇聯의 軍事的 外交이슈를 새로운 次元에서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 研究기 扱한 以上과 같은 두개의 이슈는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을 理解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어떻게 보면 蘇聯이 提議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이것이 政治的 外交이슈로서 効力を 發生하려면 이를 支援하는 軍事的 姿勞인 極東艦隊의 役割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간주된다. ③

이러한 맥락에서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을 타진하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政策的 展望을 고려함으로써 研究의 出發點을 새롭게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1) 蘇聯은 亞細亞集團安保體制와 極東艦隊를 통하여 世界的 勢力圈을 擴大하기 위한 첫 試圖로서 우선 東北亞影響圈을 確立하려 하며 :

(2) 集團體制와 艦隊外交를 추구함으로써 美國의 脫亞細亞政策이 제공할 수 있는 힘의 空白을 蘇聯勢로 메우고 ;

(3) 反中共戰略을 積極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政治的으로는 反中共聯合勢力을 集團安保體制에 依存하는 한편 軍事的으로도 中共海路를

封鎖할 意圖로 해석되며 :

(4) 이와같은 政治外交(集團體制)와 軍事外交(極東艦隊)를 통해 韓國과 日本等 기타 東北亞의 非共產國에 대한 接近을 摸索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모스크바의 心像을 괴롭히고 있는 東北亞現實은 美·日·中共으로 形成될 수 있는 對蘇聯合戰線의 可能性; 韓·美·日로 이루어지는 東北亞勢力圈; 日本·대만·韓國等の 核武裝可能性; 그리고 北韓의 對韓國侵略으로 야기될 수 있는 美·蘇·中共으로의 擴大戰爭等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蘇聯의 對東北亞 政治 및 軍事外交는 美·日·中共의 對蘇聯合戰線에 韓國과 台灣 그리고 혹 北韓이 直接 혹은 間接으로 加担하지 못하도록 하는 外交的 인센티브(Incentive)를 보여야 하는 어려운 경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心像에서 蘇聯의 視角은 蒙古의 울란·바토르, 平壤, 서울, 그리고 東京에 쏠리고 있다는 추측이 可能하다고 하겠다.

## 2. 울란·바토르 - 평양 - 서울 - 동경

이상과 같은 蘇聯의 心像을 集團安插體制와 極東艦隊에 두면서 본 研究는 最近의 蘇聯의 政策文獻이라고 간주되는 資料 164件을 상대로 이슈別 對東北亞 論評을 分析해 보았다. 即 美國의 商務省의 명의로 英文化된 蘇聯의 지난 一年間(1978年 6月부터 1979年 5月)의 政策記錄을 調査해 보았다. ④ 그 結果, 蘇聯이 蒙古, 北韓, 韓國, 그리고 日本을 상대로 取扱한 記事 및 論評

164 件中에서 直接的으로 亞細亞集團安保体制에 関한 内容이 52 件  
 이며 極東海軍力에 関한 内容이 45 件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 件이  
 間接的인 内容으로서 蘇聯의 对東北亞 政治・經濟 및 軍事的인 言  
 及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仔細한 것은 圖表 I 参照要)

<圖表 I> 이슈별 对東北亞論評分類

月 別 이슈별	1978 6~7	1978 8~9	1978 10~11	1978~79 12~1	1979 2~3	1979 4~5	計
集團安保体制에 關係된 内容數	12	10	8	10	6	6	52
海軍力과 極東 艦隊에 関한 内容 數	8	9	10	6	5	7	45
기타間接的인 内容數	10	10	14	13	11	9	67
計	30	29	32	29	22	22	164

이렇듯 이 슈별 蘇聯의 對東北亞政策 言及內容은 프라우다 (Pravda), 이즈베스차 (Izvestiya), 그리고 赤星 (Krasnaya Zvezda) 와 같은 日刊新聞은 물론 타스 (TASS) 通信, 모스크바放送, 그리고 새시대 (Novoye Vremya) 以外 11個 週刊 및 月刊誌等을 根拠하 는 데이터에서 表出되고 있다. 勿論 最近 12個月동안의 記事와 論評만으로 蘇聯의 對東北姿勢를 評價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에서 하나의 断面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圖表 II > 資料別 對東北亞論調分類

資 料 源 名	集 團 安 保 體 制	極 東 艦 隊	其 他 接 及 其 間 言	計
프 라 우 다 ( Pravda )	3	2	3	8
이즈베스차 ( Izvestiya )	2	1	4	7
赤 星 ( Krasnaya Zvezda )	1	2	3	6
타 스 通 信 ( TASS )	4	4	5	13
모 스 크 바 放 送	3	3	4	10
새 時 代 ( Novoye Vremya )	5	2	4	11
勞 働 ( Trud )	1	1	3	5
社 會 主 義 產 業 ( Sotsialisticheskaya Industriya )	3	2	4	9
20 世 紀 와 平 和 ( XX Veka i Mir )	5	2	4	11

資 料 源 名	集 団 安 保 体 制	極 東 艦 隊	其 他 間 接 言 及	計
極東問題 ( Problemy Dal'nego Vostoka)	6	5	8	19
國際關係 ( Mezhdunarsdnaya Zhizn)	4	2	3	9
海軍다이제스트 ( Morskoi Sbornik)	3	6	4	13
文 芸 誌 ( Literaturnaya Gazeta)	1	1	5	7
Soviet Military Review ( 英文 )	2	4	4	10
International Affairs ( 英文 )	4	4	5	13
Far Eastern Affairs ( 英文 )	5	4	4	13
計	52	45	67	164

또한 蘇聯의 이와 같은 對東北亞 論調를 國家別 心像으로 区分  
해 보면 다음의 圖表 Ⅲ에서 보는 바와 같은 指標를 찾아 낼 수  
있다. 即 蘇聯의 蒙古, 北韓, 韓國, 그리고 日本에 對한 言及을  
頻度, 強度 및 質的 內容으로 分類한다면 指標基準值에 의한 結果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 편의상 最低, 中間, 그리고 最高值에



해당하는 운과을 尺度로 한다. )

< 圖表 Ⅱ > 國家別 論調分類

國 名	指標基準	言 及 頻 度 (%)	表 現 強 度	質 的 內 容
蒙 古		16 ( 10 % )	+ 9	3
北 韓		15 ( 9 % )	+ 6	2
韓 國		64 ( 39 % )	- 9	5
日 本		69 ( 42 % )	- 9	8

< 凡 例 >

[ 言 及 頻 度 ]	最低平均值	中間平均值	最高平均值
	15 ( 10 % )	35 ( 30 % )	65 ( 50 % )
[ 表 現 強 度 ]	最低平均值	中間平均值	最高平均值
	+ 1 ( 肯 定 )	+ 5 ( 肯 定 )	+ 10 ( 肯 定 )
	- 1 ( 否 定 )	- 5 ( 否 定 )	- 10 ( 否 定 )
[ 質 的 內 容 ]	最低平均值	中間平均值	最高平均值
	1 ( 參 考 的 )	5 ( 名 目 的 )	10 ( 意 圖 的 )

勿論 이와 같은 指標는 筆者의 主觀的 判斷에 의해 얻어진 尺度라는 点에서 任意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總 164 件의 蘇聯資料를 검토하는 동안 定해진 凡例의 尺度에 따라 일일이 記錄한 다음 平均値를 낸것이라는 点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正當性을 主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따라서 國家別의 特徵的 言及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어진다.

蘇聯의 對蒙古言及의 頻度가 總 164 件中에서 16 件으로 낮은 數値를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蘇聯이 蒙古를 相對로 亞細亞集團安保體制와 極東의 蘇聯軍에 關한 關心度가 尙상했던 것보다 尙尙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平均 10%에 해당하는 關心度로 해석되는 反面에 蘇聯과 蒙古間의 同盟과 紐帶를 強調하는 表現은 (+9)라는 높은 強度를 보이고 있음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強度의 높은 表現은 蘇聯이 極東安保에 있어서 蒙古는 絶對적인 存在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그러나 集團安保體制的 構想에서 蒙古가 차지하는 主役은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는 現實感을 반영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蘇聯의 對蒙古 言及內容이 또한 <3>이라는 낮은 記錄은 낮은 頻度(16)와 함께 極히 安定되고 信義的이어서 特別한 이슈가 不必要했다는 反應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할 수 있다.

北韓에 對한 蘇聯의 言及과 論調도 蒙古의 경우와 같이 全體의 9%에 해당하는 15 件으로 낮은 頻度를 보이고 있는 한편, 質的 內容에 있어서도 낮은 數値인 <2>를 記錄하여 極히 參考的

對北韓 言及內容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蘇·蒙關係와 같이 安定되고 信義的인 友邦關係가 蘇聯과 北韓間에 유지되고 있다는 一面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確信할 수 없는 數值가 表現強度에서 나타난다. 卽 낮은 頻度와 낮은 質的 內容은 높고도 肯定的인 表現強度에서 이른바 “自動的 紐帶關係”를 意味한다고 하겠으나 蘇聯과 北韓關係는 蘇·蒙關係에서 본 自動케이스가 存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蘇聯의 對北韓言及에 있어서 蒙古와는 달리 <+6>이라는 表現強度는 正常的이라고 하겠으나 아직도 不確実한 要素가 있어 모스크바·평양關係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勿論 蘇聯의 樞東軍事問題에서 兩國의 自動的 紐帶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겠다. 卽 對北韓이 슈가 蘇聯의 東北亞政策에서 그리 큰 部分을 차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北韓을 조심성 있게 처한다는 모스크바의 心像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모스크바의 對韓國論調는 言及의 頻度가 64件(全體 39%)으로 記錄되고 있어 매우 높은 數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表現은 高度의 否定的 姿勢<-9>라고 하겠다. 이는 蘇聯의 對韓國心度가 매우 높으면서도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 質的인 數值를 <5>라고 봤을 때 蘇聯의 韓國에 대한 이슈는 蒙古와 北韓보다 많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蘇聯의 日本에 對한 關心度도 모스크바의 對韓國關心度보다 높다는 점은 우리가 豫測한바 대로이다. 對日本 言及의 頻도가 69件( 전체의 42%)로 높고 그 表現強度 역시 最高(-9)를 記錄함으로써 蘇聯은 東北亞에서 日本을 第1의 關心事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判명된다. 따라서 質的 內容도 意圖的인 數值인 <8>로 나타남으로 해서 日·蘇間의 이슈는 亞細亞集團安保와 極東艦隊 問題와 함께 매우 複雜한 것이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이곳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는 強力한 反中共勢力圈을 形成하려는 蘇聯의 對東北亞 心像이 集團安保體制와 海軍力에 集中되면서 이와 관련을 갖고 있는 蒙古, 北韓, 韓國 그리고 日本의 態度에 소련이 극히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視角에서 볼때 蒙古와 北韓은 象徴的인 變數로 作用될 것을 주의깊게 내다보며 韓國과 日本의 反應이 可級的 能動的인 否定要素로 登場하지 않도록 事態를 整立하려는 變化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以上과 같은 全般的인 맥락에서 蘇聯의 對東北亞心像을 細部的으로 考察하기 위해 모스크바가 1969年以來 계속해서 言及하고 있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와 이를 軍事的 側面에서 支援하는 極東艦隊의 개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集團安保體制

### 1. 目的과 形態

蘇聯이 構想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亞細亞集團體制 (Sistamy Kollektivnoy Bezopasnostiv Aziyi) 의 地域的 範圍가 韓國을 包含하고 있어서 우리의 關心이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하겠다. 1969年 6月 7日 蘇聯共產黨의 브레즈네프 (Leonid Breznev) 書記長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共產黨 및 社會黨 大會에서 처음으로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관한 蘇聯의 構想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現國際動向을 살펴볼때…… 우리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를 構想해야 하며 이와 같은 體制를 具現시키기 위한 議題를 놓고 討論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註 1)

이와 같은 브레즈네프의 發露에 대하여 많은 西方觀測者들은 蘇聯이 말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아시아에서 中共을 고립시키고 나아가서는 全아시아에서 西方勢 (특히 美國의 影響力)을 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軍事同盟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註 2) 설사 이와같은 集團安保體制가 外形上으로는 軍事同盟이 아니더라도 그 內容에 있어서 蘇聯이 바라고 있는 目的은 적어도 準軍事同盟體制를 指하고 있다고 추측해왔던 것이 支配的인 論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브레즈네프가 軍事同盟까지를 생각하고 提議한지는 不

명한 根拠가 없으며 또한 브레즈네프 자신도 1969년 이래 이에 대한 政術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蘇聯이 集團安  
保體制를 構想하게 된 背景으로 볼 때 비록 이것이 非軍事的 協力  
體制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目的과 用途에 있어서 中共과 美國의  
勢力을 수에즈 ( Suez ) 동쪽으로 부터 抑制하려는 心像을 찾아볼  
수 있겠다.

亞細亞集團安保證制의 目的은 1972年 12월 21일 蘇聯共産党中央  
委員會・蘇聯邦共和國最高會議・러시아共和國最高會議 合同會議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하여 처음으로 公開되었는데 이를 要旨別로 추려보  
면,

- ①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共存을 도모하고
- ② 아시아의 地域安保證序를 確立하며
- ③ 外勢를 배격하는 아시아의 平和的 善隣體制를 수립해서
- ④ 現存하는 紛爭을 平和的으로 해결함은 勿論
- ⑤ 未來에 있을 紛爭을 사전에 방지하여
- ⑥ 帝國主義勢力을 集團的으로 배격하게 되며
- ⑦ 결국, 아시아로 부터 戰爭威脅을 完全히 해소하게 된다는 것  
이다. (註3)

이와 같은 集團安保證制의 目的을 같은해 (1972年) 3월 20일  
第24次 蘇聯共産党大會에서 행한 브레즈네프 書記長의 演說과 연  
결지어 볼 때 蘇聯이 바라는 亞細亞集團安保證制의 運轉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 演說에서 브레즈네프는 "蘇聯은 유럽勢力인

동시에 분명한 西아시아勢力암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無秩序는 蘇聯의 能動的 介入을 요구한다" (註4)고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公開發言에서도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대한 正確한 動機와 戰略的 目標을 기록으로 남긴 根拠를 찾을 수 없으며 아마도 영원히 모호한 問題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여러가지 文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戰略目標을 表出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① 集團安保體制는 蘇聯으로 하여금 "아시아勢力"으로서의 발언을 제공받게 하고,

② 時期的으로 美國의 脫아시아政策으로 부터 形成되는 勢力空白을 메꿀 수 있는 環境이며,

③ 中共의 辺方國家들을 集團體制를 묶어 親蘇關係를 유지하면 결국 中共을 격리시켜 포위내지 고립시키고

④ 아시아國家들을 個別的으로 격리시켜 利害關係의 紛爭이 발생하면 蘇聯이 중재함으로서 影響力을 擴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蘇聯의 集團安保體制 構想에 대하여 猛烈한 反對를 들고 나온 나라는 中共인 것이다. 中共은 브레즈네프의 平和共存論과 이에 따르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를 두가지 理由를 들고 나서며 공격한 것이다. 즉 蘇聯의 平和共存主義는 革命的 社會主義勢力을 도태시키며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蘇聯의 對아시아 膨脹主義의 表現이라고 한것이다. (註5) 蘇聯은 中共을 비

뿐만 世界与論이 集團安保體制을 비난하자 이에 대한 반박성명을  
출하여 中共과 기타 反對勢力은 紛爭을 조장하고 國家利益을 武力  
으로 해결하며 他國에 대한 內政干涉을 원하는 처사라고 공박하였  
다. (註 6) 무엇보다도 中共에 대하여 말하기를 "中共外交政策  
은 反蘇的이며 아시아에 대한 霸權的 慾望 때문에 亞細亞集團安  
保體制을 반대하나 中共은 이 集團體制에 초청되어 있음을 否認하  
려 한다. (註 7)고 하였다.

蘇聯의 亞細亞集團安保體制의 構想이 아시아勢力으로의 반동음에  
그 目的이 있다는 事實, 즉 그 目的이 大國的이며 霸權的이라는  
事實은 모스크바 스스로가 中共을 비난하는 가운데 自認하는 결과  
가 되었다고 하였다. 즉 蘇聯은 中共의 反對를 다음의 두 가지  
큰 理由를 들어 반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中·蘇霸權問題  
를 놓고 傳統的 勢力政治에 關聯된 理論들인 것이다.

① 中共은 아시아에서 傳統的인 大國의 慾望을 계속함에 있어서  
古典的 中國文化圈을 近世에 적용하며 全아시아를 이른바 "中國의  
屬地"로 간주하며

② 中共은 스스로가 近世的 強大國으로서의 霸權을 수립하기 위  
하여 近東全陸과 印度洋近方を 北京의 膨脹的 戰略基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註 8)

이와 같은 蘇聯의 主張은 中共이 노리는 膨脹主義와 冒險主義가  
長期的으로는 近東아시아, 東北아시아, 東海아시아를 포함하는 광범위  
한 地域에서 政治·軍事同盟體制의 發展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



면서 그렇기 때문에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새로운 亞細亞關係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으로서 蘇聯은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中共의 膨脹主義的 影響圈 擴大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蘇聯 스스로가 아시아勢力으로 등장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알게된 셈이다. 또한 蘇聯의 反中共 政策은 西方勢力(특히 美國勢力)을 아시아에서 축출하는 데 있어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1970年代 중반에 美·中共간의 和解가 進展을 보이고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에서 中共이 아시아의 中心(the Center of Asia)으로 등장하자 蘇聯은 美國이 間接的으로 中共의 "地圖上的 侵略"(Map Aggression)(註9)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地圖上的 侵略이란 19세기 말 까지 中國文化가 지배했던 모든 中國의 辺方國들이 아직도 中國(中共)의 影響圈에 있다고 판단하는 西方觀測者들의 心理的 姿勢 때문에 中共은 蘇聯과의 領土紛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註10) 이것으로서 蘇聯이 주장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와 그 目的을 알아 볼 수 있었고 다음은 이러한 集團體制의 形態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蘇聯이 주장하는 集團安保體制는 그 真意와 構想範圍가 넓어서 集團體制에 대한 形態가 不確實하다. 브레즈네프의 첫 번째 發言이 있었던 1969年 6월 28일(브레즈네프의 演說이 있던지 11일 이후) 당시 日本駐在 蘇聯大使는 日本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말하기를 蘇聯은 아직도 이 集團安保體制에 加入資格이 있는

國家들을 選別하는 작업이 남았다고 함으로서 모스크바 자신이 어떤 形態로 發展시킬 것인가를 確定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약 2周日도 채 못되는 7월 10일 蘇聯邦最高會議에서 그로미코外相은 그의 外交政策報告를 통하여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는 모든 亞細亞國家( All Asian States )들이 참가해야 한다고(註 12). 밝힘으로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이 말한 " 새로운 國家間的 關係로 "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는 共產國은 勿論 其他 非共產國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說明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蘇聯의 集團安保概念은 그렇다면 어떤 形態를 의미하는가? 蘇聯의 評論家들은 現在까지 이것이 " 雙務協定 " 인지 아니면 " 多者協定 " 인지에 대하여 分명한 態度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論評들이 한결같이 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 平和地帶 " ( Zone of Peace )를 구축한다는 原則에 대하여는 一致하고 있는 듯 하나 이것이 兩者間이나 아니면 多者間이나 하는 問題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서 모호한 解釋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파블로브스키( Pavlovsky )같은 蘇聯의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은 「노보예·브레미야」( Novoye Vremya )에서 비록 새로운 多者間的 關係改善이 바람직한 理想的 亞細亞集團安保體制이겠으나 現實적으로 現存하는 雙務協定과 兩者間協約 등을 기초로 하는 集團安保體制가 더욱 合理的이라고 했다. (註 13) 이와 같이 雙務協定으로 부터 漸進적으로 발전하여 多者協的으로 이

르는 接近方法에 대하여 모스크바는 파블로프스키의 主張을 되풀이하여 对外放送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여러번 強調된 것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註 14)

蘇聯의 公開發된 文獻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論評들을 蘇聯当局者의 見解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多者協約과 兩者條約 모두를 綜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二元化하는 것도 集團安保體制를 達成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편도 있으며 또는 多者協約과 地域協定을 한데 묶어서 機能的인 紐帶를 도모하는 方法도 있다고 주장하는 者도 있다. 그러나 가장 代表的으로 파블로프스키의 雙務協定 및 兩者間協約 모델에 反對하는 意見을 내세운 사람은 마트베예프 (Matveyev)의 多者協約 理論인 것이다. (註 15) 마트베예프는 東洋學研究所 (蘇聯科學アカ데미所屬)의 研究委員으로 이른바 中國通으로 알려진 學者로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 問題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프라우다 (Pravda)의 外信部長인 콜레스니첸코 (Kolesnichenko)는 마트베예프의 글을 인용하면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기존하는 雙務協定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創設되어야 한다." (註 16)고 주장했던 것이다.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관한 構想이 1969年 6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에 이러한 集團安保體制의 形態問題, 특히 參加國問題에 대하여 여러 가지 解枳과 推測이 있어온 가운데 많은 混線이 있었으나 1973年 10月로서 公式的인 蘇聯의 態度가 兪發된 것이다. 즉 브레즈네프 書記長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世界平和委員會"

( the World Congress of Peace Forces )에서 參加資格은 " 모든 아시아國家들이 차별없이 相互平等한 基準" (註 17)에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加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蘇聯關係會議 議長 코쉬긴 ( Kosygin )도 브레즈네프의 演說內容을 되풀이하는 發言에서 이를 確信시켰다.

이마도 亞細亞集團安保體制的 形態에 관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公式的인 見解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사람은 「노보에·브레미야」의 소바킨論說委員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브레즈네프의 1972年 3月 21日字 第15次 蘇聯邦全國勞組大會에서 행한 연설과 (註 18) 1973年 10月 26日 "世界平和委員會"에서의 演說을 骨幹으로 하면서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的 形態를 해설했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 ① 國家利益을 追求함에 있어서 武力行使를 포기하는 모든 아시아國家들이 參加하며,
- ② 國力과 領土的 大小의 區別없이 平等하고 對等한 權利를 갖고 參加하고,
- ③ 유엔憲章에 보장된 集團安保意識을 遵守할 용의가 있는 아시아의 主權國家가 參加하며,
- ④ 參加國은 相互內政不干渉 原則에 입각한 政治·經濟·文化 및 기타 非軍事的 分野에서의 相互協力을 主要活動으로 한다는 것이다 (註 19).

소바킨은 브레즈네프의 公式聲明들을 종합하여 論評하면서 蘇聯은

결코 武力에 의하여 "勢力關係 ( Correlation of Forces ) 를 社會主義勢力의 勝利로 유도할 意思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勢力인 蘇聯은 이 地域의 集團安保體制를 제의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勿論 유엔憲章에도 侵略者에 대하여 武力的 集團行動이 保障되어 있음으로 해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도 會員國이 敵으로 부터 武力侵略을 받았을 때는 蘇聯은 「軍事援助를 保障하는 集團安保體制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蘇聯은 이와 같은 亞細亞集團安保體制가 軍事同盟의 성격을 갖지 않는, 즉 非軍事的 協力を 原則으로 한다고 했다.

## 2. 問題点

蘇聯의 亞細亞集團安保體制 提議가 그 目的과 形態에 비추어 볼 때 과연 韓國까지도 그對象으로 하는 것인가의 問題는 여기에서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로서는 그 自體가 아직도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構想이기에 韓國의 視角에 맞추어 分析하려면 더 많은 變數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集團安保體制가 一般的으로 제기하고 있는 問題点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蘇聯의 集團安保 提議가 制度的으로 實現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장애물은 美國의 계속적인 亞細亞進出인 것이다. 1970年代

초에 예측되었던 美国의 脱亜細亞政策은 實質적으로 어떠한 勢力空白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닉슨·포드行政府를 계승한 카터政府도 美国은 不動的인 아시아勢力임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장애물은 최소한 中共이 集團安保體制에 동의하는 基本問題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1969年 중반에 1970年代를 展望하면서 亞細亞集團安保體制의 必要성과 이를 성취시켜줄 國際環境條件을 나열했던 것이다. 즉 인도지나半島에서 戰爭이 끝나고 美軍이 아시아에서 서서히 撤収하는 동안 中東에서의 아랍·이스라엘戰爭도 끝나면 平和主義的인 日本의 影響으로 韓半島에서 美軍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論理였던 것이다. (註21) 그러나 蘇聯의 예측대로 많은 變化가 온 것은 사실이다. 가장 核心的인 條件인 美国의 韓國安保에 대한 軍事的 介入과 中共의 反撥은 아직도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이다.

1970年 부터 1978年 사이에 蘇聯이 기대했던 發展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蘇聯은 아직도 많은 先行條件들이 未決狀態로 남아있음을 자인하면서도 "平和의 勢力" (Forces of Peace) 들은 점차적으로 改善되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은 個別的으로 或은 地域的 協商에 의하여 武力不使用協定 (Non-use of Forces Agreement) (註22) 등을 체결한다면 멀지않아 亞細亞集團安保體制의 전망은 밝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蘇聯은 많은 아시아國家들과 相互經濟·科學技術協力을 骨字로 하는 協定을 추진해나간다면 集團安保體制는 結果적인 必然性에 의하여 얻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듯 하다고 하겠다.

1975年 말 蘇聯의 公式集計에 의하면 亞細亞集團安保證制에 대한 各國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고 發表하였다.

\* 公式的 贊成國 : 몽고,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쉬, 이란, 이라크, 시리아,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 非公式的으로 好意를 表明한 國家 : 버마, 아프가니스탄

\* 非公式的으로 關心을 表明한 國家 : 네팔, 日本,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 無反應國家 : 인도네시아, 北韓

\* 反對國 : 中共 등으로 나타나며 蘇聯은 韓國을 言及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1975年 이후 베트남戰爭이 끝나고 共產化된 베트남이 親蘇政權으로 기울어지면서 부터 蘇聯은 亞細亞集團安保證制에 관한 宣傳의 頻度가 낮아지기 시작한 變化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變化에 대하여 專門的으로 分析한 論文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추측가능한 理由 가운데 몇 가지는 베트남으로 하여금 好戰的 反中共姿勢를 취하도록 하는 時間的 餘裕가 필요했을 수 있으며 또는 당분간 中·越對立으로 中共南端을 威脅하는 것으로 中共을 心理的인 孤立狀態에 빠뜨려, 사실상 集團安保證制의 部分的 目的을 達成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理由는 美軍이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撤収하지 않았기 때문에 集團安保證制에 관한 必要性을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지 않았다는 점인 것이다. 확실히 蘇聯의 「프라우다」나 「이스베스차」 또는 「노보예브레미야」등도 1976年 이후 集團安保體制에 대한 言及이 弱화된 것만은 사실로 나타났다고 쾨셀 (Hensel) 教授가 밝히고 있다. (註 24)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대로 蘇聯의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에 관하여 中共의 反應은 " 蘇聯은 第三國을 통하여 中共을 포위하고 고립화시키려는 戰略" 이라고 했다. 한 예를 든다면, 1978年 3월 9일 日字 「人民日報」는 말하기를 " 이제 蘇聯은 베트남을 이용하여 中共의 對東南亞關係를 惡化시키려 하고 있으며 平和地帶 (Zone of Peace) 라는 명목으로 全아세아를 中共에 대한 敵對地域으로 이끌어 하는 이른바 亞細亞 集團安保體制를 構想하고 있다. (註 25) 고 했다.

비록 蘇聯의 見解에 의하면 인도가 集團安保體制에 贊成國으로 그리고 파키스탄이 關心을 表明할 國家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두 나라는 地政學的, 位置와 領土의 規模로 보아서 亞細亞 集團安保體制에서 빠질 수 없는 國家들인데 그들은 아직도 參加如否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이들은 美國과 中共과의 安保的 力学關係를 주시하면서 각기 自國의 對蘇姿勢가 극히 流動的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1978年 4月 親蘇政權이 되면서 이 地域의 "勢力關係" 는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兩者中 揀一해야 하는 政策的 選擇의 壓力을 부과시켜 주게 된 것이다. 즉 이들은 蘇聯과의 友好를 增進시키든가 아니면 蘇聯·아프가니스탄의



合同威脅에 저항하는 路線을 強化하는 方法인 것이다. 이에 대한  
판가름은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可否를 表明해야  
하는 立場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註 26)

아프가니스탄이 1978年 4월에 親蘇政權으로 변질하고 그 해  
12월에 蘇聯과 友好親善·協力條約이 체결되면서 蘇聯의 亞細亞集  
團安保體制에 대한 攻勢가 다시 熱氣를 띄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일은 이른바 蘇聯의 "平和主義運動"으로  
서 世界的인 組織網을 가지고 있는 "平和委員會"의 活動이라고  
생각된다. 蘇聯平和委員會(Soviet Mirnovo Komiteta)는 世界  
50餘個國에 代表部(支部)를 두고 있으며 유엔機構의 合法的인  
認定을 받고 있는 蘇聯의 宣傳團體인 것이다. 이러한 平和委員會  
가 世界 여러나라 會員國(世界平和會議 - World Peace Council)  
에게 配布하는 季刊誌 「20世紀와 平和」(XX Veka i mir)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를 大幅的으로 宣傳하고 있다. 하나의 實例를  
든다면 1978年 第9號에서 포노마료프(Ponomaryov)는 亞細亞  
集團安保體制와 SALT II 協定을 추진하는 蘇聯의 努力은 모스  
코바의 平和主義精神과 平和共存原則에 입각한 全人類의 希望이라고  
했던 것이다. (註 27)

보리스·포노마료프는 蘇聯共産黨 中共委員이며 政治局 後補委員으  
로서 黨의 國際局 活動을 責任지고 있는 總責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여 蘇聯共産黨 國際局은 西方 및 기타 非共産國內의 共産黨  
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工作業務를 담당하면서 이른바 世界平和會議

機構를 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世界平和會議 (World Peace Council.-WPC) (註 28)가 世界 50여개국의 "平和委員會"를 機能的으로 管割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蘇聯平和委員會"가 WPC는 勿論 世界 50여개국에 있는 平和委員會를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世界平和會議(WPC)의 議長은 인도의 찬드라(C.handra) 博士로 알려져 있으나 그를 움직이는 者는 蘇聯의 보리스·포노마료브인 것이다. 美國의 한 情報分析에 의하면 WPC의 50여개국 平和委員會 會員 중 22명이 社會主義政黨代表들이고 나머지도 進歩的 勢力으로 간주되는 人物들로서 예컨대 世界勞動組合聯合會長, 世界青年聯合會長, 아시아·아프리카團結機構會長, 國際民主女性聯合會長, 國際學生聯合會長, 基督教平和會議議長 등이라고 한다. 이 情報分析에 의하면 이들은 世界平和會議(WPC)의 活動資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蘇聯平和委員會가 제공하는 工作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이 주목해야 한다. (註 29)

### 3. "새로운 國際關係"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어 해결하지 못한 장애에 부딪히고 있으나 (註 30) 모스크바는 "平和主義運動"이라는 戰略的 偽裝術을 통하여 끈질긴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모스크바는 亞細

重集團安保體制를 說明하면서 되풀이하는 用語가 이른바 "새로운 國際關係"인데 이 概念과 構造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蘇聯이 意味하는 새로운 國際關係란 모스크바와 東歐圈과의 國際關係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말이다. 즉 COMECON 經濟圈과 바르샤바條約機構 (Warsaw Treaty Organization-WTO)는 넓은 의미에서의 蘇聯의 安保秩序이며 모스크바의 經驗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國際關係도 이러한 骨格을 생각하며 重細重集團安保體制를 논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모스크바가 經濟·技術協力이라는 名目下에 이루어놓은 COMECON 經濟圈의 統攝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서 經濟的 側面에서의 集團安保體制가 어떤 것이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一名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 라고 하여 露語로는 Soviet. Ekonomitseskoi. Vzaimopomoshchi 라고 불리우며 통칭 COMECON 으로 알려진 東歐經濟相互援助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들을 통하여 모스크바가 東歐圈經濟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

- ① 友好石油파이프라인 (Friendly Oil Pipeline)
- ② 平和電力組合 (Peace Electric Power Guild)
- ③ 兄弟개스파이프라인 (Brotherhood Gas Pipeline)
- ④ 鐵道運送물團 (Railway Transportation Pool Fleet)
- ⑤ COMECON 銀行制度 (COMECON Banking System)

- ⑥ 科学・技術交換委員会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change Commission )
- ⑦ 두바原子力研究所合同運營管理 ( Joint Institution for Duba Nuclear Research . of USSR)
- ⑧ 國際強力磁場・熱處理研究所 ( International Laboratory of Strong Magnetic Fields and Temperature )
- ⑨ 國際科学・技術情報센터 (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 ⑩ COMECON 標準研究所 ( COMECON Institution on Standardization )
- ⑪ 管理問題研究所 ( Institute of Management Problems )
- ⑫ 世界社会主義經濟問題研究所 (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Problems of the World Socialist System )
- ⑬ COMECON 運營委員會 ( COMECON Executive Committee )
- ⑭ COMECON 防衛産業委員會 ( COMECON Defense Industry Commission ) 註 ( 註 31 )

蘇聯은 1955年 바르샤바條約機構가 東歐圈의 軍事同盟體制로 등장하기 이전에 東歐 여러나라와 체결한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에 의해 東歐의 政治・經濟的 장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미 1949年 COMECON을 構造的으로 體系化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도 모스크바의 平和政勢戰略은 亞細亞集團安

保體制가 당장 成立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雙務的 友好 條約 체결만으로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國際關係"가 構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蘇聯은 友好條約關係에 있는 第三世界 國家들을 第 33 次 COMECON 大會 ( 1979 年 6 月 26 日 ~ 28 日 모스크바에서 개최 )에 특별히 초대했던 사실이 있는 것이다. (註 32 )

蘇聯이 公式적으로 기록해 놓은 "새로운 國際關係"의 意味는 모스크바가 발간한 「外交辭典」( Diplomaticheskii Slovar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새로운 形態의 社會主義 國際關係란 敵對關係가 없으며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입각하여 共同目的을 위한 兄弟的인 協力關係를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國家들이 相互間의 主權과 國家利益을 존중하고 相互平等의 原則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國家들은 새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團結과 協力を 증대하며 國防과 平和를 보존하는 것이다. 社會主義國家의 外交方法은 各國이 자발적으로 相互協力關係를 形成하여 집단적으로 自由人民을 統合하고 나아가서는 世界的 共產主義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世界平和를 보호하는데 있다. " (註 33 )

사실, 國際關係에 관한 政治·經濟問題를 취급하고 있는 學術月刊

誌 International Affairs (露文과 英文)이나 共產主義理論과 國際共產主義運動을 취급하는 World Marxist Review (露文과 英文) 月刊誌에는 이와 같은 社會主義的인 새로운 國際關係에 대한 理論과 實際를 거론하지 않는 論文은 한편도 없을 정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에 약간의 變化가 생긴다면 이는 党的 最高權力者의 政策的 發言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브레즈네프의 發言은 外交原則에 行動的 意味를 부여하는 唯一한 存在인 것이다. (註 34)

蘇聯이 제의하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이와 같은 "새로운 國際 係" 構造下에서 현실적으로 狀況을 충분히 감안하는 共產主義의 革命的 救世論을 平和主義라는 말로 造作한 外交概念이라 하겠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短期的으로는 亞細亞 型 COMECON을 目的으로 하고 長期的으로는 亞細亞型 바르샤바條 約機構를 구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國際主義的 社會主 義運動이 蘇聯의 戰略독트리나(Doktrina)라고 할 때 새로운 國 際關係에 의한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軍事스트라테기야(Strategia) 로 설명된다고 하겠다. 蘇聯은 二次大戰 이후 自國의 安保를 確 保하기 위하여 그 先行條件으로 ① 國際共產主義運動 ② 友好 國과 同盟國에 대한 領土的 防衛 ③ 同盟國의 對蘇 安保的 依 存政權化 ④ 同盟國의 政治·經濟的 蘇聯式 統合 등을 강조했던 것이다. (註 35)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관한 모스크바의 着想의 根源은 모스크바의

世界戰略에서 찾아볼 수 있다. 蘇聯은 레닌 (Lenin) 의 1917년 "平和宣言"에서 基本이 되는 戰略독트리나를 指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安保證體制라도 蘇聯은 善隣政策에 의한 經濟協力을 骨格으로 하는 經濟協力協定을 重大視한다" (註 36) 고 한 것이다. 레닌의 이러한 平和宣言은 현재도 蘇聯의 公式的 外交政策 基調로서 世界的 意味를 부여하고 있는 集團安保의 政策的 概念이다. 한편 駐美蘇聯大使館의 政治參事官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蘇聯科學아카데미 美合衆國研究所 (The Institute of U.S.A.)의 先任研究員인 비코브 (Bykov)의 論文에 의하면 레닌의 集團安保독트리나는 새로운 世界秩序를 確立하는 새로운 國家關係論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一連의 國際會議과 國際條約은 모두가 蘇聯의 集團安保體制라고 했다.

- ① 1933년,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가 채택한 유럽集團安保體制에 관 관한 宣言文
- ② 1954년, 베를린外相會議에서 蘇聯이 주장한 全유럽集團安保條約
- ③ 1955년 유럽集團不可侵條約 체결의
- ④ 1966년, 蘇聯은 부가데스트 (루마니아)會議에서 東歐 6個國集團安保體制를 제의
- ⑤ 1969년 蘇聯이 주동하는 이른바 바르샤바條約國家가 유럽集團安保體制를 제의

⑥ 1971年, 蘇聯共產黨 第24次大會에서 6個項目的 "브레즈네프  
•독트리나" 를 채택하고 유럽集團安保體制를 제의 (註37)

⑦ 1969年 브레즈네프의 亞細亞集團安保體制 發言이후 蘇聯共產  
黨은 1976年 2月 第25次大會에서 정식으로 亞細亞集團安  
保體制를 제의

集團安保體制라고 하면 概念的 側面과 實際的 側面이 있을 것이  
다. 하나의 概念으로서 集團安保는 모든 同盟體制에서 最上의 介  
入權을 부여하는 安保的 共同意識을 明文化하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이는 하나의 國際關係體系를 創造하는 概念이며 아울러  
會員國들의 外交安保政策의 目的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集團安保體制가 부과하는 義務는 실제로 會員國의 行動을 制限  
내지 統制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的 側面은 前提條件이  
集團行爲에 대한 여러가지 國內外的 制約性 때문에 集團安保體制가  
安保的 手段이 될 뿐이지 결코 外交的 目的이 될 수 없음을 깨  
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레브날(Ravenal)教授는 말  
하기를 集團安保體制는 理想的 概念的 目的을 잃게 되고 安保的  
手段으로서 일단 現實性을 받아들이면 集團行爲은 必要惡의 存在로  
서 國力の 比率대로 利用될 뿐이라고 했다. (註38) 결국 蘇



聯도 集團安保體制의 現實的 安保手段을 생각하면서 亞細亞 弱小國  
들을 利用하려는 것이 모스크바가 의도하는 集團安保體制에 의한  
새로운 國際關係인 것이다.

과연 蘇聯은 새로운 國際關係를 集團安保體制的 어떠한 構造的  
形態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集團安保體制的 여러가지 構造的 可能性을 생각함으로써  
모스크바의 心中을 豫測할 수 밖에 없다. 즉 集團安保體制  
가 하나의 國際政治體系를 創造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體系  
는 ① 勢力分配, ② 勢力規定 및 統制裝置, ③ 勞  
力單位(國家) 등의 自律的 行動規則에 의하여 규명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가지의 構造的 要素로 蘇聯의 새로운  
國際關係論을 分類하면 集團安保體制는 勢力國家(즉 蘇聯)에  
의한 善意的 指導體制를 前提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註  
39) 다시 말해서 힘의 作用만이 集團安保體制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蘇聯은 힘은 있으나 指導的 善  
意在 없음으로 해서 共產勢力에 의한 世界帝國에로의 邁步  
이 있을 뿐으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 Ⅲ. 海洋力과 極東艦隊

#### 1. 艦隊外交

武力에 의한 外交的 活動은 侵略을 目的으로 하기도 했으나 歷史적으로 外交的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으로 특히 平和時의 武力 示威을 主目標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19세기 外交史가 증명하듯이 팽창하는 西歐勢力들은 中東과 近東全域에 걸쳐서 이른바 海軍에 의한 武力外交(Gun Diplomacy)는 많은 아시아 殖民地를 얻게 할 수 있었고 특히 旧稱末의 韓國外交史는 武力外交에 의한 開港 史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強大國에 의한 艦隊外交는 우리에게 생소한 概念이 아닌 것이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世界는 艦隊外交를 다시 한번 注視하게된 事件들을 蘇聯의 海軍力 行使에서 발견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중반 부터 西方 側은 蘇聯이 本國領土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하여 海軍力에 의한 外交를 추진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代理戰爭의 軍事外交路線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注視하기 시작했다. 實질적으로 1967년 아랍·이스라엘戰爭 이후 1976년 앙골라事態가 발생하기까지 큰 십년 동안 蘇聯海軍의 武力示威는 큰 것만 세어도 무려 29件(註1)을 기록하고 있어서 蘇聯의 艦隊外交는 본격적인 策動에 돌입한 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蘇聯은 自國의 海軍力이 外交的 手段으로 利用되야 한다는 戰

略的 原則를 갖고 있다. 蘇聯 海軍提督 골쉬코프(Gorshkov)의 著書「國家의 海軍力」(Morskaya Moshchi Gosdaretva)에 의하면 蘇聯 海軍의 平和時 業務는 國家와 黨의 外交目標를 용이하게 하는 役割과 蘇聯의 海洋通路를 保護하고 蘇聯領海內로 侵入하는 모든 敵性國家의 船舶을 방어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골쉬코프 제독은 이 책에서 平和時의 海軍의 役割은 蘇聯領土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戰略地域에서 發生하는 在來式 地域紛爭에 介入된 蘇聯의 國家利益을 保護한다고 했다. (註 3) 이 말은 遠隔地域에서 蘇聯의 戰略的 利益을 確保하는 前進基地(Forward Base)가 蘇聯의 海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前進基地에 있는 蘇聯艦隊는 經濟·軍事援助는 물론 貿易과 文化交流를 추진시키는 潛在的 힘의 과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蘇聯의 艦隊外交는 그 形態에 있어서 아시아와 기타 第三世界地域에 蘇聯艦隊의 出現을 既定事實로 固定시킴으로서 自國의 艦隊出現地域을 모스크바의 利益과 介入의 目標圈이라는 一 點을 公認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蘇聯艦隊가 어느 特定地域에 주기적으로 出現함으로써 旗艦의 國籍標識를 통하여 그 地域에 대한 蘇聯의 積極的인 關心을 傳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蘇聯艦隊가 地中海 및 印度洋 그리고 韓國의 大韓海峽에 자주 나타남으로 해서 이 地域國家들은 蘇聯의 領土的 國境線이 지척에 있다고 느끼게 되며 아울러 蘇聯은 地中海, 印度洋 그리고 아시아勢力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다. (註 4)

遠隔地域에 出現하는 蘇聯艦隊는 浮流하는 蘇聯領土를 상징하며 心理的인 効果는 그 만큼 蘇聯領土를 멀리까지 연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간 蘇聯艦隊의 遠洋出現은 주로 NATO 地域을 중심으로 한 戰略的 業務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1968년)부터 蘇聯海軍의 政治的(外交的) 目的을 지닌 役割은 中東과 아프리카 그리고 印度洋地域으로 그 活動範圍를 넓혀왔던 것이다 印度洋의 경우 1969년 부터 蘇聯艦隊는 이 地域에 固定的으로 配置되고 있어 이미 印度洋 沿岸國家들은 蘇聯艦隊의 出現을 이상하게 보지않게 되고 蘇聯도 이 地域에서 分명한 關係當事國의 하나라고 認定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利害當事國이란 既得權을 얻게된 蘇聯은 그 勢力을 이제는 西아프리카海岸 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蘇聯의 艦隊外交는 印度의 ~~볼베이~~ (Bombay) 港으로 부터 카리비아海岸과 멀리는 南아프리카海岸에 까지 浸透하게 된 것이다 蘇聯의 艦隊外交가 팽창기세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海軍의 親善訪問의 回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1954년 부터 1964년 까지 10년 동안의 統計는 겨우 37 件에 불과하나 1965년 부터 10년간은 그 回數가 170 件으로 늘어났으며 1976년 부터 1978년 말 까지 3년간에 무려 150 여 件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註 4)

후르쉬초프(Khrushchev) 時代에 있어서 蘇聯이 武力行使도 不辭

하겠다고 威脅해도 이를 두려워한 나라는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그 만큼 1960년대 이전의 蘇聯海軍力은 威脅的인 存在가 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Breznev) 時代에 와서는 蘇聯의 武力的 潛在力은 海軍力을 포함하여 막강한 위치에서 美國의 軍事力과 對等하게 발전한 것이며 이제 모스크바의 武力行使 不辭論은 어느 정도의 眞意를 내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蘇聯軍의 平和時 任務는 “帝國主義의 侵略的 慾望에 能動的으로 대처한다.”고 함으로서 海軍의 役割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蘇聯 科學아카데미의 權威를 자랑하는 第三世界에 대한 政策的 頭腦庫(Think tank), 國際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의 常任研究委員인 리스트비노프(Listvinov)는 平和時的 戰略과 軍部の 役割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核武器에 의한 全面報復이 가능했던 時代(1954 ~ 1961년)는 지나가고 이제는 융통성 있는 選擇的 對應戰略時代로 변하여 全面的 核報復 보다는 戰術核武器의 使用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戰略時代에 있어서 蘇聯軍隊는 世어느곳에서도 帝國主義의 侵略行爲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戰略을 취해야 한다. 물론 蘇聯의 戰略은 核戰爭의 全面的 對決을 防止하는 目的으로 武器體系에 있어서 優位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制限戰爭의 여러 가지 形態에 對備하는 戰略으로서 紛爭이 발생하는 現地에 蘇聯軍의 登場과 固定配置는 물론 機

動隊의 能率的 稼動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註 5)

地域紛爭으로 발생하는 局地戰爭 혹은 地域戰爭에 대한 蘇聯의 戰略은 第三世界에 대한 軍事支援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蘇聯海軍과 制限된 特殊部隊 (註 6) (게릴라 支援部隊과 空挺部隊)인 것이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대한 蘇聯軍의 役割은 주로 蘇聯海軍에 의한 武力示威와 空挺部隊에 의한 軍事支割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뚜렷해진 것이다. 地域紛爭에 介入하는 蘇聯의 戰略은 戰爭을 확대시키지 않고 制限戰爭 規模에서 勝利로 이끌 수 있는 戰略을 構想하고 있음이 확실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制限戰爭을 무엇보다도 蘇聯의 海軍을 주축으로 한다고 주장한 자카로브(Zakharov) (註 7) 戰略專門家の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第三世界에서 일어나는 局地紛爭과 制限戰爭에 介入하는 戰略은 選別的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言及한 대로 地政學的 考慮와 戰略資源을 확보하는 基點으로 介入을 選別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 蘇聯의 介入戰略이다. 成功의 秘訣을 政治的 壓力과 海軍艦隊에 의한 軍事的 示威을 가함으로서 이른바 艦隊外交의 手港인 것인 마 어느 軍事的 危險負擔이 가장 낮으며 큰 結果를 바랄 수 있는 戰略이라 하겠다. 蘇聯의 危險負擔을 적게 하면서 軍事力에 의한 外交的 壓力을 美國의 저항이 없으므로 해서 더욱 용이하게 目的을 이루게 되는 現狀인

듯하다. 第三世界에 대한 直接的인 介入을 주저하고 이 地域에 대한 地政學的 그리고 戰略資源을 탐내지 않는 美國의 立場은 일반적으로 第三世界에서 國家 利益을 놓고 蘇聯과 軍事的 優劣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美國에 비하여 蘇聯의 國家利益은 概念을 달리하고 있어서 모스크바는 戰略的 利點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蘇聯의 艦隊外交는 美國의 戰略的 脆弱點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第三世界에서의 地域紛爭에 있어서 美·蘇의 介入은 항상 非對稱的 (Asymmetric) 인 傾向이 있다고 하겠다. 第三世界는 NATO나 東北亞地域과 같이 戰略的 緊縛感이 없을 뿐만 아니라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大陸의 紛爭이기 때문에 美國은 第三世界紛爭을 있을 수 있는 後進地域의 紛爭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美國의 이와 같은 辺方戰略概念이 第三世界를 지배하고 있음을 잘 아는 蘇聯은 이를 이용하는 戰略으로 第三世界를 功掠하고 있다고 하겠다. 1967년 부터 1976년 까지 10년 동안의 統計에 의하면 28件에 해당하는 蘇聯海軍의 武力示威와 艦隊外交活動 중에서 16件에 해당하는 경우가 美國의 反應的 威脅을 받지 않았으며 6件의 경우에 있어서 美國의 公式的인 聲明에 의한 糾彈을 받았으며 다만 2件의 경우에서만 美海軍艦隊에 의한 制止를 받았을 뿐이다. (註 8)

가장 代表的인 例를 몇가지 들어보면, 1968년 1월 (정확하게는 1월 부터 3월까지) 北韓의 푸에블로 (Pueblo) 호를 납치했을 때와



1969년 4월 北韓이 美軍情報機(US EC-121)를 강제 추락시킨 데 대한 美國의 對北韓 軍事的 報復을 事前에 막기 위하여 蘇聯의 極東艦隊가 韓國의 東海와 大韓海峽에 대기 출동하여 美 第7艦隊와 神經對峙를 감행한 바 있다. 어느 한 美國의 戰略家의 말에 의하면 蘇聯艦隊가 그토록 摘時에 깊은 關心을 표하지 않았더라면 푸에블로와 EC-121事件은 美國의 軍事的 報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는 點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註9). 좀더 적극적인 蘇聯海軍力의 示威는 1973년 모로코軍隊를 시리아로 運送할 경우와 같은 해 南예멘軍隊에 海運手段을 제공했으며 또한 1976년 앙골라事態에서는 蘇聯海軍이 모든 戰略的 輸送을 직접 담당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1969년에 있었던 蘇聯의 對가나(Ghana) 武力示威와 같은 艦隊의 役割은 1970년대(1971년 부터 1978년 까지)의 年平均이 5件이 되며, 地域別로 보면 西太平洋地域이 9件, 아렌灣과 印度洋地域이 8件,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이 7件, 地中海地域이 2件, 大西洋地域이 3件, 그리고 其他地域이 1件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蘇聯艦隊 關心地域의 順位가 西太平洋과 印度洋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註10).

蘇聯艦隊에 의한 힘의 外交 現象은 푸에블로事件(1968년)과 EC-121事件(1969년)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1970년대의 代表的인 힘의 外交가 蘇聯艦隊에 의하여 이루어진 事例는 많겠으나 몇 가지 만을 나열한다면 요르단事態, 印度·파키스탄戰爭事態, 베트남의 하이퐁事態(美海軍이 하이퐁港에 機雷를 매설 했을 때), 아남·이스

라일 10月戰爭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蘇聯艦隊에 의한 힘의誇示는 美國의 武力行使를 制限시키는 데 目的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蘇聯艦隊의 武力示威는 美國과의 一戰을 不辭하는 正面挑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武力示威는 “蘇聯의 國家利益을 極大化하는 行爲”라고 해석하는 意見과 혹은 “蘇聯의 國家利益을 保護하는 行爲”라고 하는 見解의 差異로 蘇聯艦隊의 役割을 功利的인가 아니면 守備的인가 하는 問題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問題는 蘇聯艦隊의 介入地域에 既存하는 蘇聯의 國家利益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韓國의 東海와 大韓海峽에서의 蘇聯艦隊의 武力示威는 이 地域에 蘇聯의 既存利益이 없다고 보았을 때 蘇聯은 國家利益을 根大化하는 行爲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註 11)

## 2. 海洋力の 評價

1975년 있었던 蘇聯海軍 機動訓練이었던 “Okean II”는 世界的인 戰略圈을 총망라한 大規模 作戰演習이었으나 여기에서 蘇聯의 全艦隊가 動員되어 大西洋, 地中海, 카리비안海, 印度洋 그리고 日本近海와 韓國의 東海 등에 自國艦隊를 二週內에 戰圈配 置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海軍의 作戰訓練을 지원하기 위하여 動員된 蘇聯空軍機들은 本土는 물론 古巴, 기니, 소말리아

그리고 몽고 等地에서 出沒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蘇聯은 大  
西洋 南端은 물론 西太平洋 까지를 戰略的으로 統制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 나라의 海軍力을 評價하는 基準은 여러가지가 있겠다. 全艦  
隊가 갖고 있는 "톤"數 (Tonage), 火力, 機動力 또는 艦籍數와 艦  
載力 등이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數量的 統計에 目的을 두지 않고  
다만, 蘇聯海軍力의 潛在力 전부를 포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戰艦은  
물론 商船團, 遠洋漁船團 그리고 海洋資源探查船團 등으로 構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註 12)

蘇聯海軍의 構造的 潛在力은 물론 海軍의 機動力과 火力 및 기  
타의 戰鬪能力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支援하는 商船團, 遠  
洋漁船團 그리고 海洋資源探查船團 등으로 蘇聯海軍力의 중요한 部分  
을 차지한다고 한다. (註 13) 이와 같은 見解는 蘇聯의 海軍提督  
세르게이·골쉬코프 (Sergei Gorshkov) 자신이 이를 밝힘으로서 西  
方世界는 蘇聯의 모든 非戰鬪團 民間船團들의 蘇聯海軍의 作戰과  
戰略的 體系에 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蘇聯의 商船團과 遠洋漁船團 그리고 海洋資源探查船團은  
平和時에도 海軍艦隊의 任務를 代行하면서 世界 여러 港口와 航路  
를 開拓함은 물론 潛水艦基地를 포함한 여러가지 海軍의 戰略基地  
를 探查하고 있다. 특히 蘇聯의 商船團은 海軍 못지 않게 海運  
任務인 軍需物資를 운반하며 또한 蘇聯漁船團은 中立 혹은 親蘇政  
權 (第三世界의) 과 漁業協力을 통하여 政治的 效果를 얻는가 하면

蘇聯의 海軍資源探查船團은 水産資源共同開發協定에 의하여 海洋資源探查를 가장하고 아프리카와 기타 第三世界地域에서 軍事情報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蘇聯의 海洋力은 海軍을 포함한 이와 같은 商船團, 漁船團 그리고 資源探查船團을 총망라한 評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글쉬코프의 海軍戰略을 우선 蘇聯의 海洋力을 빠른 時日內에 世界的인 規模로 格上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15년 전만 해도 蘇聯의 海軍力은 海岸警備隊에 지나지 못하는 近海警備力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弱勢는 1950년 韓國戰爭, 1956년 수에즈運河危機, 1958년 레바논事態 그리고 1962년 쿠바 미사일危機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 이후 蘇聯의 艦隊와 民間船團들은 世界到處에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자랐으며 1977년 蘇聯의 保有하고 있는 潛水艦數는 나치 獨逸이 갖고 있었던 모든 潛水艦의 10배를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글쉬코프提督은 말하기를 “帝國主義勢力(美國을 자칭하는 듯)이 海洋勢力으로 남아 있는 한 蘇聯海軍은 國家的인 主要武力으로 성장해야 한다.”(註14)고 했고 이에 의하여 지난 5年間 蘇聯은 美海軍力의 증가율에 비하여 50% 이상을 증가하는 增強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던 다음에서 蘇聯의 民間船團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蘇聯商船團이 運送하는 총톤수는 世界 6位이지만 商船의 數로서는 美國 다음으로 2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77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統計에 의하면 蘇聯은

1,700여척의 遠洋商船을 보유했으며 10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80년에는 2,000여척을 目標로 하며 이 數字는 현재 世界의 119개국으로 航海中이며 年間收入은 40억 루블로 추산되고 있다 (註15) 이와 같은 成長은 지난 10년간의 業績이며 이들의 戰略的 威力은 蘇聯海軍艦艇에 버금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1962년 古巴危機 당시 蘇聯의 商船團은 海軍의 任務를 더고 軍事作戰에 다수 참가했던 事例를 알 수 있듯이 古巴로 향하는 모든 戰略武器(탱크, 航空機, 大砲 등)들이 商船에 의하여 海軍의 役割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일은 베트남戰에서도 하이퐁灣에 나다니는 蘇聯의 商船團을 생각할 수 있겠다. (註16)

蘇聯商船團이 數에 있어서 世界의 2位라고 한다면, 蘇聯의 遠洋漁船團은 世界의 1位를 차지하고 있다. 1959년에 시작된 7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1966년에 시작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1977년 말 경에는 자못 世界的인 規模로 팽창하여온 것이 商船團에 의한 蘇聯의 海洋力이다. 1977년을 기준으로 볼 때 100톤급 이상의 漁船은 4,000여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日本의 3,200여척에 비하여 그 規模를 상상할 수 있겠다 하겠다. 더욱 1,000톤급 이상을 비교할때 日本이 겨우 100여척인데 비하여, 蘇聯은 2,50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註17) 이들은 海軍의 軍事的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本然의 業務인 漁業보다는 戰略的 役割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漁船團은 美國을 비롯한 모든 自由陳營 近海에서 相對國의 戰略情報를 수집하여 蘇聯海軍에 報告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海軍의 명

령에 의하여 戰略基地(潛水艦基地, 戰略海峽 등)에 대한 探索  
作業을 수행한다고 한다. 더욱이 特定國과의 漁業協定에 의하여  
이 船團은 相對國에 接近하여 자유롭게 軍事情報를 얻어낸다고  
한다(註 18)

蘇聯의 商船團과 漁船團의 役割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나라  
의 海洋資源探查船團을 알지 못하고서는 論評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蘇聯의 資源探查船團은 蘇聯艦隊의 斥候  
船團이라는 것이다. 蘇聯海軍의 斥候兵 役割을 하는 海洋資源探  
查船團은 이와 같은 目的을 띄고 특별히 製造된 50여척으로 構  
成되어 있다고 하며 이들은 이른바 蘇聯海軍의 AGI 船團이라고  
알려져 있다. 資源探查船團의 主要 業務는 情報蒐集이며 모두가  
超近代式 電子裝置로 通信施設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  
동무대는 大西洋, 印度洋 그리고 太平洋을 비롯하여 모든 戰略海  
上에서 資源探查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의 海洋探查船團은 사실상 蘇聯의 모든 民間船團(商船團과  
漁業船團)의 情報活動을 統制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海軍의 指  
示 보다도 높은 次元인 KGB의 統制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  
資源探查船團의 戰略的 位置를 대변하는 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蘇聯의 極東艦隊에 배속된 AGI 船團은 15  
척 내외가 되며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本  
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AGI 船團 중에는 푸리모레  
(Primorye) 級과 같은 5,000톤이 넘는 大型船도 포함되어 있

으며 多數가 東支那海上에서 부터 大韓海峽을 지나 오호크츠헬에 이르는 사이를 巡航하며 中共의 近況을 감시하고 있다고 간주된다(註 19)

이상과 같은 蘇聯의 民間船團은 蘇聯의 海軍을 支援하는 戰略的 海洋力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곳에서는 全體的인 蘇聯海軍의 武力體制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에서 蘇聯의 極東艦隊를 평가하는 참고로 그 骨格만을 지적할까 한다.

蘇聯海軍의 海上艦艇(편의상 “艦艇”이라 略稱)은 약 270여 척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에는 2척이 KIEV級航空母艦과 순양함, 구축함 및 프리깃艦(Frigate)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蘇聯海軍은 260여척의 潛水艦을 보유하며 이들 가운데 약  $\frac{1}{3}$ 정도가 核潛水艦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蘇聯海軍은 약 101척의 水陸兩用上陸艇이 주축을 이루는 海洋勢力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겠다(註 21)

끝으로 이와 같이 海洋勢力을 지향하는 蘇聯이 지난 20여년간 얻은 世界的인 影響力이 무엇이겠는가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指標 한가지를 要約해서 밝혀보기로 한다. 비록 蘇聯이 유라시아(Eurasia) 勢力이라고 하지만 모든 國家的 中心部가 유럽大陸에 위치함으로서 蘇聯은 傳統的으로 大陸勢力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蘇聯의 傳統은 海軍力의 팽창과 더불어 事實上的 亞細亞勢力圈으로 발전함은 물론 많은 海外基地에

힘입어 世界的 海洋勢力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第二次大戦의 종식과 더불어 蘇聯이 條約에 의해서 얻었던 港口는 유일하게 핀란드의 포르칼라(Porkkala) 港灣施設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1950년에 체결된 中·蘇條約에 의하여 旅順港에 대한 使用權을 얻은 바 있으나 이들은 더 이상 効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 부터 友好條約과 기타 賃借協定에 의하여 얻은 蘇聯의 前進港口基地 (Forward Harbor Base) 는 다음과 같다.

国名	港口名(寄港 및 碇泊)	年度
큐바	하바나	1960
남예멘	아덴, 무칼라	1968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1971(註22)
이라크	바스라하, 움·카스르	1972
소말리아	베르베라	1974(註23)
베트남	캄란灣(미확인)	1975
시리아	파투스, 라타키아	1975
기니	코나코리	1975
리비아	알마르	1975
콩고	브라자빌, 포인트, 노이레	1975
앙골라	루안다外 多數	1976
인도네시아	< 試圖했으나 失敗 >	1976
말레이시아	< " " >	1976



国名	港口名(奇港 및 碇泊)	年 度
말디브스共和国	< 推 進 中 >	1977
西 사 모 아	< " >	1977
통 가	< " >	1977
필 리 핀	< 試 圖 했 으 나 失 敗 >	1977
에 티 오 피 아	마사와, 아사브	1978
臺 灣	< 試 圖 했 으 나 失 敗 > ( 미 확 인 )	1978

### 3. 極東艦隊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으나 蘇聯의 艦隊中 아시아海洋을 담당하는 海軍力을 한때는 "極東艦隊"라고 오랫동안 불리어져 왔으며 또는 근자에 와서는 "太平洋艦隊"로 불리워지고 있어서 혼동을 피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蘇聯의 "極東艦隊"라고 하는 듯하다. 筆者도 이곳에서 편의상 太平洋艦隊를 蘇聯의 極東艦隊라 칭하고자 한다. 참고로 구태여 지적한다면 부루킹스研究所의 모든 研究文獻은 "極東艦隊"라고 지칭하고 있다(註 24)

蘇聯의 極東艦隊(혹은 太平洋艦隊)는 北 艦隊(Northern Fleet), 발틱艦隊(Baltic Fleet), 그리고 黑海艦隊(도합 4개艦隊)로서 全体的인 蘇聯의 海軍力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4개艦隊의 構造的 編成을 비교적 內訳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配置狀況을 알 수 있다(註 25)

	極東艦隊	北艦隊	발틱艦隊	黑海艦隊	合 計
잠 수 함	125	?	?	?	260
( 핵 잠 수 함 )	(47)	(?)	(?)	(?)	(80)
( 재 태 식 )	(78)	(?)	(?)	(?)	(180)
해 상 함 정	73	68	48	81	270
수륙양용상륙정	15	?	?	?	101 (500톤 이상)
해 군 항 공 대	400	?	?	?	1,310
( 중 · 장거리 폭격기 )	(100)	(80)	(130)	(105)	415
( 기타 지원 항공기 )	(300)	?	(?)	(?)	900

이상과 같은 미숙한 統計를 놓고 極東艦隊가 과연 蘇聯의 4개 艦隊 가운데 그 比重이 몇번째로 될 것인가를 말할 수는 없겠으나 潛水艦과 海上艦艇 그리고 海軍航空隊의 數로 미루어 보아 1배 혹은 2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현재 北艦隊에 속해 있는 KIEV級 항공모함 MINSK호가 極東艦隊에 配屬되어 있음으로서 極東艦隊는 분명히 第1位가 되는 蘇聯의 艦隊로서 登場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하겠다.

블라디보스토크에 母港을 두고 있는 蘇聯의 極東艦隊는 사할린, 오후츠크海, 캄차카半島, 쿠릴群島 그리고 멀리는 베링海峽 까지를 그 活動範圍로 한다. 블라디보스토크가 極東艦隊의 母港으로 지정된 까닭은 이 港口만이 蘇聯極東과 陸路로 연결되어 있는 唯一한 港口이며 멀리 않은 곳에 나호드카商業港口가 있어서 블라디보

스토크의 軍港施設의 補助港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곳 블라디보스토크로 부터 黑海艦隊의 母港인 오데사(Odessa)까지는 海路 17,000 km이며 이 거리의 중간지점이 印度洋이라는 점에서 極東艦隊와 黑海艦隊는 共同으로 印度洋을 巡洋한다고 한다 (註 26) 블라디보스토크가 海軍의 戰略的 그리고 地政學的 位置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說明할 수 있겠으나 이곳으로 부터 海路로 연결되는 主要地點은 다음과 같은 距離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註 27)

블라디보스토크로 부터 ;

地 點	距離(km)
元山까지	610
釜山 "	980
호주의 시드니까지	9,300
日本の : 하코다메까지	700
日本の : 요코하마 "	1,700
오호츠크해북단의 마가단까지	2,600
캄차카半島의 케트로파블로브스키까지	2,500
사할린의 콜사코브까지	1,000
하바로프스키까지는 陸路로	640
소베츠키야·가반까지	1,110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蘇聯의 極東艦隊는 4개의 支隊로 区分되어 이들의 拠点은 ①韓國의 東海와 大韓海峽, ②오호츠크해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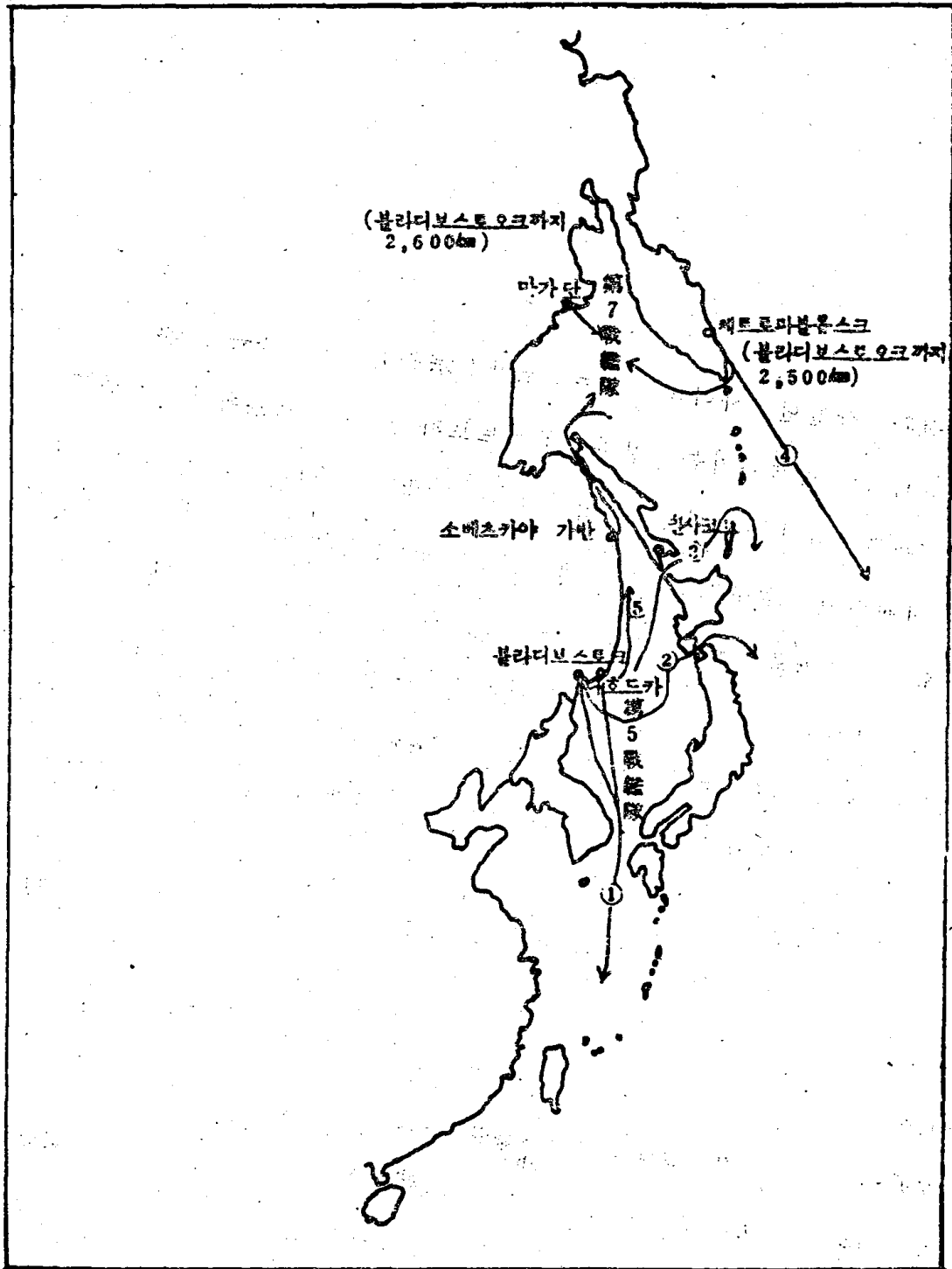
域, ③西太平洋地域, 그리고 ④벨리핀과 카롤린(Caroline)群島 地域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濟州南方 300마일海上과 琉球列島 사이에 또 하나의 支隊를 파견하기도 하며 특별한 戰略目標을 수행할 때는 장거리 폭격기의 임호를 받기도 한다 (註 28)

이와 같은 支隊의 編成은 다시 艦隊(Group)로 편성되어 이른바 第5戰艦隊(5<sup>th</sup> Fleet)와 第7戰艦隊(7<sup>th</sup> Fleet)로 区分되며 前者를 南部戰艦隊(Southern Group) 그리고 後者를 北部戰艦隊(Northern Group)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다 (註 29)

알려진 바에 의하면 第5艦隊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이곳에서 海路로 60km 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나호드카(Nakhodka)港을 (註 30) 兩據點으로 하고 있으며 第7艦隊는 소비츠키야·가반(Sovetskaya·Gavan, 사할린 反對方向에 있음), 코스코보(Korsakov, 사할린南端)와 마가단(Magadan, 오희츠크海北端)은 물론 太平洋쪽의 캄차카半島에 있는 페트로파블로프스키軍港등을 平常적인 寄港地로 삼고 있다고 한다.

다음의 <圖表 1 ; 極東艦隊의 基地와 巡航路>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가단基地로 부터 母港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2,600km나 되고, 페트로파블로프스키基地로 부터 블라디보스토크母港까지는 2,500km의 먼 航路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蘇聯의 極東艦隊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太平洋으로 나가려면 ①韓國의 東海를 거쳐 對馬島近海인 大韓海峽을 통과하거나, ②日本의 혼슈(本州)와 후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추가루(津輕)海峽을 지나거나,

〈圖表工〉 極東艦隊(5戰艦隊/7戰艦隊)의 基地와 巡航路



③北海道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소야(宗谷)海峡(혹은 La Perouse)을 빠져나가는 길과, ④케트로파블로브스크항에서 太平洋으로 바로 나가는 方法 등이 있다. 또한 活動的으로는 ⑤사할린과 시베리아 南端大陸 사이에 있는 타타르(Tatar)海峡을 거쳐서 오호츠크해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겠으나(註 31) 이海峡은 대단히 좁을 뿐 만 아니라 水深이 고르지 못하여 氷上艦艇은 물론 潛水艦의 通路로서는 不適合하다. 이海峡은 긴 겨울 동안 結氷條件이 막심하여 일년중 8개월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蘇聯의 極東艦隊가 太平洋으로 出航할 수 있는 海路는 理論的으로는 이상과 같이 다섯가지의 可能性이 있으나 실제로는 네가지 航路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케트로파블로브스크항은 日本近海를 지나지 않고 太平洋으로 직접 進入할 수 있는 唯一한 軍港이다. 그러기 때문에 蘇聯은 이 軍港을 대대적으로 開發하고 있으나 이곳은 시베리아大陸과 連結된 陸路 및 鐵道가 없어서 尙상 2,500km나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海路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地理的 惡條件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 뿐 아니라 케트로파블로프스크는 긴 겨울 동안의 結氷期와 여름에는 짙은 霧現象 때문에 1級軍港으로서의 條件이 결여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78년 말을 기준한 統計에 의하면 蘇聯의 極東艦隊가 保有하고 있는 艦艇은 125척의 潛水艦을 포함하여 모두 750~770

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는 美 7 艦隊과 이를 補助하고 있는 3 艦隊의 一部를 합한 數 보다 2 배가 넘으며 사실상 蘇聯의 極東艦隊는 北艦隊 다음가는 海軍力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極東艦隊는 백파이어 (Tu-26 Backfire) 장거리 폭격기를 포함한 약 1,000 여機の 航空支援을 받고 있는 것이다 (註 33). 이와 같은 極東艦隊의 戰力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艦 種	數 (척)
순양함 (미사일적재) .....	15 (KRESTA 級 ; KRIVAK 級포함)
구축함 · 푸리깃함 .....	18 (KOTLIN-SAM 級포함)
잠수함 .....	125 (47 척은 核潛水艦)
기뢰정 · 상륙정 .....	300 (ROPUCHA ; ALLIGATOR 級포함)
지원 함정 .....	200
기타 소형 함정 .....	72
항공모함 (未確認) .....	1 (VTOL-KIEV 級)

※ 海軍航空隊소속 335 대와 기타 支援을 받을 수 있는 空軍機 약 650 여대가 極東艦隊의 航空力인 것이다 (註 34). 蘇聯의 極東艦隊는 이미 그 數에 있어서 美 7 艦隊를 훨씬 능가한다. 美 7 艦隊가 갖고 있는 2 척의 航空母艦과 多數의 上陸戰艦에 비하여 部分的인 弱勢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제 極東艦隊는 4 만톤級의 KIEV 型 항공모함을 갖게될 것이 확실시됨으로서 멀

지 않아 長距離 上陸艇과 補助船團의 補強마저도 예측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蘇聯의 極東艦隊의 예측되는 威脅에 대처하려는 美國은 爾루우선列島와 韓半島地域에 각각 2개의 美7艦隊基地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는 輿論이 美國의 戰略家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註 35) 알려진 바에 의하면 蘇聯은 日本 이 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採磨) 重工業으로 부터 大型 浮上도크를 1978년 10월 경에 引受함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港은 KIEV級 항공모함이 寄港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9년 6월에 MINSK号가 大韓海峽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港으로 入港함으로서 蘇聯의 極東艦隊는 수직이착航空機(VTOL機)를 적재하는 항공모함을 갖게된 것이 거의 確定的인 事實로 굳혀진 것이다. (註 36)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蘇聯은 實存하는 2척의 KIEV級 항공모함과 1980년대 초에(1981~82) 또 하나의 KIEV級 항공모함이 完成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직이착 戦闘機(FORGER-VTOL), 艦上用헬機(HORMONE-A)를 적재할 수 있을 뿐 美7艦隊의 MIDWAY号와 같이 固定翼航空機가 離着할 수 있는 艦上滑走路를 보유한 항공모함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極東艦隊가 보유하게 되는 KIEV級 항공모함은 航統距離가 짧은 VTOL機(固定翼항공기에 비하여)로 武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全体的인 極東地域의 攻撃目標을 카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蘇聯의 極東艦隊는 오호츠크海와 캄차크半島를 방어하던 이른바 “本土防衛”의 領海 및 近海警備로



부터 遠洋艦隊體制로 變했고 (註 37) 따라서 極東艦隊의 守備戰略으로 發展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極東艦隊는 반드시 蘇聯極東의 本土와 領海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에 대처함은 물론 아시아 全域에 걸쳐 蘇聯의 國家利益이 위협당한다곤 느껴질 때 어디서나 이를 보호하는 海軍力을 動員한다는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註 38)

蘇聯의 戰略的 特徵을 말하면서 유명한 케난 (Kennan) 의 Foreign Affairs 論文은 蘇聯의 武器體系는 分명한 目的을 (혹은 目標物을) 指定한 다음에 改善되고 있다고 했다 (註 3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KIEV 級 항공모함의 極東配置는 極東艦隊가 생각하고 있는 戰略目標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같은 理論的 背景으로 볼 때 極東艦隊가 새로 보유하고 있는 KRESTA II 級 미사일 순양함과 KRIVAK II 級 미사일 구축함 및 NANUCHKA 미사일 프리깃艦艇들은 蘇聯의 極東沿海州와 堪察카半島를 防禦할 目的의 武力이라기 보다는 太平洋一帶를 活動무대로 하는 武器體系라는 점을 알 수 있겠다. 또한 極東艦隊가 갖고 있는 潛水艦이 北艦隊의 能力과 對等하나 MINSK 号의 登場으로 機動力과 航空力의 支援이 補強된 셈이다 (註 40)



#### Ⅳ. 蘇聯의 對東北亞 展望

以上에서 本 研究는 中共을 除外한 蘇聯의 對東北亞心像을 蒙古, 北韓, 韓國, 日本等과 關係된 모스크바의 関心을 찾아보고 따라서 問題意識에 반영된 蘇聯의 亞細亞集團安保体制와 蘇聯의 海洋力 및 極東艦隊를 이러한 関点에서 이들의 内面을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해서 蘇聯은 中共의 부담한 도전에 対応하여 東北亞에서의 그나름대로의 位置를 確立하기 위하여 蒙古, 北韓等은 勿論, 점차로 韓國과 日本에 대한 높은 関心을 禁할 수 없는 極東政治에 새로운 눈을 뜨기 始作함을 알 수 있었다.

國際政治는 모든 政治現像에서도 가장 變化가 심각하고 또한 最高의 不確實性을 지닌 變數의 作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現實을 감안한 蘇聯은 그나름대로 亞細亞勢力에로의 慣例的 地位에서 事實的 位置를 確立하고자 政治的 그리고 軍事的 努力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앞으로의 展望을 내다보는 蘇聯의 對東北亞姿勢가 1980年代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미 討論된 資料를 根拠하여 綜合的인 귀결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자못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蘇聯이 말하는 亞細亞集團安保体制는 現實的으로 모스크바의 平和 攻勢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한다는 心理的 만족밖에 그 成立이 不可能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러한 集團体制는 中共이 相對的으로 平和攻勢를 취하는 限 亞細亞諸國들은 가급적 中立的 安保姿勢에 더욱 신

경을 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많은 亞細亞國家들은 中共과 蘇聯을 同格視하여 결국은 同時的 關係改善의 利得을 얻으려 할 뿐일 것이다.

蒙古의 경우를 例外하고는 北韓을 비롯한 기타 亞細亞 共產國家들도 中·蘇의 平和攻勢는 차라리 自國의 中立과 實利를 얻어 내는데 절호의 機會라고 생각할 것이 確實한 것 같다. 또한 韓國과 같은 非共產國家들도 蘇聯의 平和的 集團體制가 蘇聯에 의해 確實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기前에는 能動的인 對蘇接近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한 反面에 日本과 같은 自律的 能動國家는 現段階에서 모스크바가 제의하는 集團安保體制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換言하면 蘇聯의 集團安保體制는 他律的으로 安保問題가 不安하게 생각되는 國家들만이 어느程度的 興味를 갖게 될 것인바 이들은 모든 條件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蘇聯의 保障이 不確實한 理由때문에 集團體制의 制度的 性格을 否定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結局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지난 10余年間 이렇다할 結果를 얻지 못한 反面에 安保的 不安은 蘇聯의 極東을 加重하게 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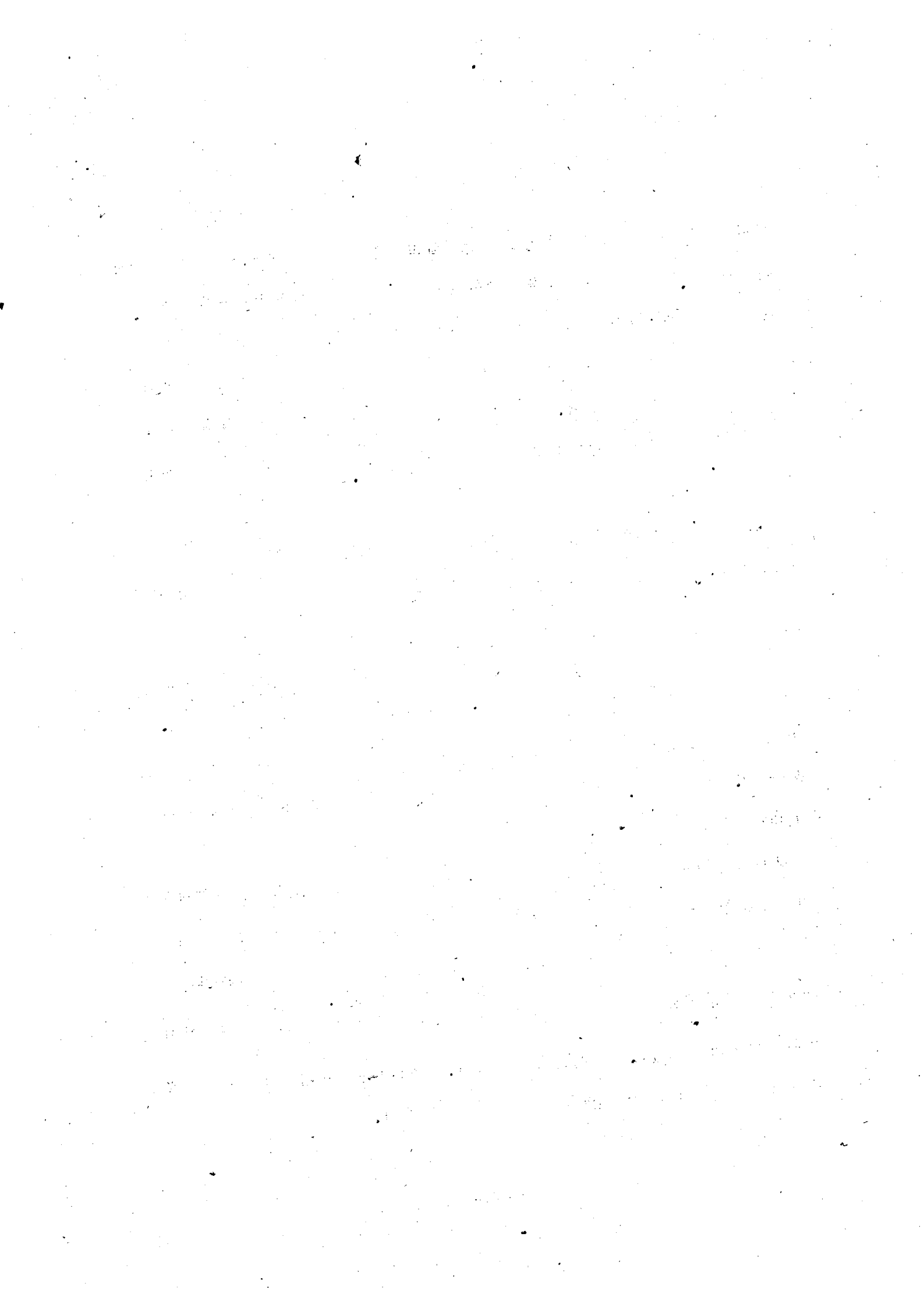
蘇聯의 視角에서 볼때 亞細亞集團安保體制는 東北亞에 있다가 보다는 東南亞와 西南亞에 있다고 간주된다. 東北亞에는 北韓이 蘇聯의 平和攻勢를 對外的으로 支持할 수 없는 武力統一政策이 있으며 또한 北韓은 中·蘇紛爭

에서 中立的 利益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韓國은 蘇聯의 集團安保構想을 全的으로 의심하여 自國의 安保問題는 現存하는 韓·美協力 體制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不進한 集團體制에 反하여 소련의 極東海軍力은 막강한 地位를 確立한 것이다. 이와같은 極東艦隊의 成長은 蘇聯의 東北亞政策이 非平和的이라고 하는 點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結果라 하겠다.

蘇聯의 軍事戰略은 뚜렷한 目的意識을 提示하면서 戰略概念을 設定한다. 權位있는 消息通에 의하면 蘇聯의 戰略은 데탕트體制下에서 地域戰爭의 勝利라고 하며<sup>①</sup> 이에 준하는 戰略概念은 代理戰爭일 것으로 판단된다. 蘇聯海軍의 役割은 이와 같은 地域戰爭과 代理戰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主力으로서 戰略基地를 確保하고 또한 艦隊外交를 전개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蘇聯海軍의 役割은 골쉬코프 (Gorshkov) 元帥에 의해 분명히 밝혀진 蘇聯海軍의 平和時 任務인 것이다.

蘇聯의 極東艦隊는 實戰에서 威力을 과시하고 美國의 太平洋艦隊를 制壓한다는 長期的인 目的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나 그 보다 平和時의 海洋權을 確保하고, 한편 東北亞에서의 第1의 艦隊라는 事實을 既定化함으로서 蘇聯은 더이상 東北亞의 外部勢力이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心像일 것이다. 이點은 東北亞의 勢力均衡을 變化하는 重大한 發展이 아닐 수 없겠다.



却 註

< 第 1 章 >

- ① 内容分析에 関한 接近方法에 대하여는 Robert C. North et al., Content Analysis ( Evanston, N. J.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pp. 37 ~ 54 参照.
- ② 仔細한 内容은 "The Problem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ndrew Gorgy (ed.),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1970 ), pp. 1 ~ 9 参考
- ③ 아 点은 蘇聯이 最近에 내놓은 文献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關係史, 1945 ~ 1977, 第六章에 밝히고 있다. M. S. Kapitsa, et al., Istoriga Mezhdunarodnykh Otnosheniy na Dalnem Vostoke, 1945 ~ 1977 ( Khabarousk Khabarouskae Knizhroe Izdatelstvo, 1978 ), pp. 378 ~ 397.
- ④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蘇聯文献은 모두가 FBIS ( Daily Report - Soviet Union ) ( Spiny-field, Va.,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 June 1978 ~ May 1979 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 第Ⅱ章 >

- ① Pravda, June 8, 1969 i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次後부터는 CDSP 로 略称함), July 2, 1969.
- ② 다음의 文献을 参考함 : Peter Howard, "A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MIZAN, July/August 1969, PP.199 ~ 204: Hemen Ray, "Soviet Diplomacy in Asia",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0, PP.46 ~ 49: Alexander Ghebhardt, "The Soviet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 Asian Survey, December 1973, 1075 ~ 1091.
- ③ Pravda, December 22, 1972. in CDSP, January 17, 1973.
- ④ Izvestia, March 21, 1972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 Soviet Union (次後부터는 FBIS-Soviet Union 이라 略称함) . April 18, 1972
- ⑤ "A New Move in The Kremlin's Global Strategy," Peking Review, September 29, 1978. P.13.
- ⑥ V.Pavlovsky, "Collective Security - the Path to Peace in Asia," Mezhdunarodnaya Zhizn, May 23, 1972, pp.30 ~ 36 ) in FBIS, June 21, 1972
- ⑦ I.Trafinov, "To Whom Asian Security is a thorn in the side?: Peking Says "No." Mlada Fronta, November 4, 1974, P.5 in FBIS, December 4, 1974.



- ⑰ Pravda, October 27, 1973, pp. 1 ~ 3 in CDSP, November 21, 1973.
- ⑱ Pravda, March 21, 1972 in CDSP, April 19, 1972, pp. 1~9
- ⑲ V. Sobakin, "Collective Security: Historical Experience and Modern Times", Kommunist, No. 4, 1974. PP. 86 ~ 99 in FBIS, April 9, 1974; O. Borisov, "For Peace and Security in Asia" New Times (Moscow), No. 39, September 1971. PP. 10~11; V. Kudryavtsev, "Probl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December 1973, pp. 94 ~ 98
- ⑳ Ibid (Sobakin) P. 87
- ㉑ O. Borisov, op. cit. pp. 10 ~ 11.
- ㉒ B. N. Panomaryov, "A Lasting Peace is the Hope of All People", XX Veka i Mir (Moskva), No. 9, September 1978, PP. 4 ~ 14.
- ㉓ Radio Moscow, November 24, 1975 in FBIS December 1975, P. C1-4
- ㉔ Howard M Hensel, "Asian Collective Security: the Soviet View", ORBIS, Vol. XIX, No. 4, Winter 1976, PP. 1564 ~ 1580
- ㉕ 人民日報 1978年 3月9日, P. 1
- ㉖ 印度・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三個國中에서 印度와 아프가니스탄은 蘇聯과 友好親善條約을 맺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이들

- ⑧ Yu, Lugovskoy, "Why, Peking Says "No": the Maoist Against Collective Security in Asia" Krasnaya Zvezda, March 19, 1974 in FBIS, March 25, 1974.
- ⑨ Yu. Lugovsky, "The Ropewalkers for Peking," Krasnaya Zvezda, July 19, 1974, P. 3 in FBIS, July 25 1974.
- ⑩ 中共의 "地圖上的 侵略" ( Geographical Aggression)에 대한 概念은 不確實하나 蘇聯은 中共의 隣接國에 대한 國境을 모호하게 表示함으로서 膨脹과 領土紛爭을 前提한다고 한다.
- ⑪ Radio Tokyo, June 29, 1969, in FBIS, July 1, 1979.
- ⑫ Pravda, July 11, 1969, P. 4 in CDSF, August 6, 1969.
- ⑬ V. Pavlovsky, "Asia -- Region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Security," Novoye Vremya, July 21, 1972 in FBIS, August 10, 1972
- ⑭ Radio Moscow, May 11, 1972: May 26, 1973: August 19, 1973 in U.S. Air Force Intelligence Service (次後부터는 USAIS 略稱함)
- ⑮ V. Matreyev, "New Horizons in Asia", Za Rubezhom, No. 28, 1972, P. 9, in FBIS, July 18, 1972.
- ⑯ Tomas Kalesnichenko, "Collective Organism of Security Should be Created," Pravda, July 5, 1972, P. 3 in CDSF, July 28, 1972

中間에서 영향력을 無視할수없다.

- ②7) x x VeKa i Mir, op.cit.p.5
- ②8) I. Ivkou, "Asia: New Hopes on the Ancient Continent,"  
Literaturnaya Gazeta, September 5, 1978, pp.4 ~ 14. In  
FBIS, September 13, 1978.
- ②9) WPC 에 관해서, Comments on FM 100-5: From A Soviet Point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1978), pp.21-24 参照
- ③0) 中央日報, 1978 年 10 月 6 日字 参照
- ③1) B.Grebennikov and L.Nikalayev, "CMEA: Integration Year,"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October 1972), pp.8~15.
- ③2) 最近 第 33 次 COMECON 大会가 모스크바에서 1979 年 6 월에 개  
최되었고, 이곳에는 핀란드, 이라크, 멕시코, 앙골라, 라오스, 이디  
오피아,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남예멘 代表 등이 참관인으로 초청되었다.
- ③3) A.A. Gromyko (ed), Diplomaticheskii Slovar Vols. I ~ III  
(Moskva, 1960, 1973), P.P.465~468 (Vol. I); pp.405~406  
(Vol. III).
- ③4) Y.Nikolayev, "Soviet Foreign Policy: Basic Ideological  
Principles"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vember 1973),  
pp.65 ~ 76.

- ③⑤ Nish Jamgatch, "Alliance Management in Ea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XXVII, No. 3, April 1975, PP. 405 ~ 429
- ③⑥ V. I. Lenin, Collective Wor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0) Vol. 26, P. 255
- ③⑦ Vladimir L. Bykov "The U.S.S.R. and Security in Europe: A Soviet View," the Annals, Vol. 414, July 1974, PP. 96~104
- ③⑧ Earl C. Rovenal, "An Autopsy of Collective Secur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0. No. 4, Winter 1975/76 PP. 697 ~ 699.
- ③⑨ Ibid. P. 698

< 第 III 章 >

- ① James M. McConnell and B. Dismukes, "Soviet Diplomacy of Force in the third World,"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79, P. 20
- ② Sergey G. Gorshkov, Morskaya Moshch' gosdarstva (Moskva: Voenizdat, 1976), P. 9.
- ③ Ibid. P. 13.
- ④ David Rees, "Soviet Sea Power : the Covert Support Fleet" Conflict Studies, No. 84, June 1977, P. 6.
- ⑤ V. M. Kulish, et. al., Voynnaya Sila i Mezhunarodnyye Otnosheniya (Mosk: Idzdatel'stvo Mezhdunarodnyye

Otnosheniya, 1972), pp. 135 ~ 136 as quoted in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79, P. 19.

- ⑥ N. Zagorodnikov, Kommunist Varuzhënnnykh Sil (Moskva), No. 16, 1966, pp. 48 ~ 49.
- ⑦ S. Ye. Zakharov, Istoriya Voenno-Morskogo Iskusstva (Moskva: Voenizdat, 1969) P. 560.
- ⑧ Jame M. McConnell and B. Brodford, Problems of Communism, op. cit, P. 20의 Table I을 参照要
- ⑨ 이와 같은 見解는 筆者가 Georgetown大의 Edward Luttwak 교수와의 對話에서 알게 된 것이다. Luttwak 교수는 1979年 5月 27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한 바 있다.
- ⑩ Jame M. McConnell op. cit P. 23.
- ⑪ 같은 論理로서 蘇聯의 極東艦隊가 가지고 있는 對韓半島에 관한 蘇聯의 戰略的 利益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⑫ Pavid Rees, op. cit, Conflict Studies, P. 13.
- ⑬ Pravda, July 25, 1976, P. 3.
- ⑭ TASS in Eng. sh(FBIS) May 13, 1976 ..... A Book Review on the a Power of the State.
- ⑮ David Rees, op. cit, Conflict Studie, P. 9.
- ⑯ Daily Telegraph(London), February 3, 1977, P. 4.
- ⑰ F. J. West, et. al, Environment for U. S. Naval Strategy in the Pacific Indian Ocean Area(New port: Naval War

College, 1978), P 367.

- ⑱ 蘇聯은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魚船團  
團에 의한 전략적 역할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行為로 간주된다.
- ⑲ Admiral Macrice Weiner, Commanal, Vol.1, No.1, July 1978.  
P.9에서 홍콩의 明報日刊을 인용한데서 근거하고 있다.
- ⑳ KIEV 級 항공모함은 垂直離着陸機 (VTOL) 와 헬기만을 적재할수  
있으며 現在 이와같은 항공모함은 二隻이 가동중이나 다른 한  
隻이 건조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㉑ David C.Jones, United States Military Porture for FY  
198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P.23
- ㉒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港은 에집트가 1972 年條約을 포기함으로  
서 蘇聯의 사용권이 상실되었다.
- ㉓ 소말리아의 베르베라港에 대한 蘇聯의 사용권도 1977年 소말리  
아가 條約을 폐기함으로서 소련은 사용권을 상실했다.
- ㉔ Stvart E. Johnson, The Vilitary Egvation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rtution,  
1979) P.13
- ㉕ Harold Brown, Department of Defeuse Annval Report,  
Fiscal Year 1980 (Washington, D.C: U.S. Governmevt  
Printing Office, 1979), P.93: United States Miletarg  
Porture, For

- FY 1980, op.cit, P. 56; The Military Balance, 1978-1979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8), pp. 9 ~ 10 등을 参考하여 調節한 資料임.
- ②⑥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p.cit, pp. 36:92:107 등을 参考
- ②⑦ Soyuz Sovetskikh Sochalisticheskikh Respublik Politiks  
-Administrativnaya Krata (Moskva: Glavnoe Upiavlenie  
Geodezii i Kartografii pri Sovete Ministrov, 1977) 를 参照했음.
- ②⑧ Desmond Wettern, "The Growing Offensive Capability of the Soviet Submarine Fleet" Foreign Affairs Research Institute Policy paper #10, 1979, pp. 3 ~ 8
- ②⑨ The Military Equation ..... op.cit, P. 16
- ③⑩ 나홀카 ( Nakhodka ) 는 블라디보스토크 ( Vladivostok ) 의 軍事的 補助港이며 이곳은 시베리아의 最端에 位置한 代表的 商業港口都市다. 이곳은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莫大한 資本을 投資하여 콘테이너施設을 갖춘 極東地方의 唯一한 소련의 近代港이다.
- ③① Stuart E. Johnson, op.cit p. 16
- ③② W. V. Kennedy, "Kamchatka: Nonnuclear Deterrent" Military Review, February 1978, pp. 12 ~ 18.
- ③③ Stuart E. Johnson, op.cit pp. 14 ~ 15.

- ③④ James Fighting Ships, 1977 ~ 88 (London: Macdonald and Janes, 1978.), pp. 712 ~ 15.
- ③⑤ Kenneth R. McGruther, "the Anchors in the Pacific : A Strategic Proposal for the U.S. Pacific Fleet," Naval Review, Vol. 105/5/915, May 1979, pp. 126 ~ 138
- ③⑥ 朝鮮日報, 1979年3月20日字
- ③⑦ Robert Herrick, Soviet Naval Strategy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1967), pp. 200 ~ 207
- ③⑧ L. Edgar Prina, "The Carrier Controversy: Round Two" Sea Power, February 1979, pp. 33 ~ 37
- ③⑨ George Kennan, "X Article" Foreign Affairs, June 1946.
- ④⑩ The 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op.cit, P. 25

< 第Ⅳ章 >

- ① 이 문제에 대하여는 仔細한 說明이 筆者의 研究論文 79-09 에 있음을 밝힌다. 金裕南, 蘇聯의 「第三世界戰略과 東北亞...第一部」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79), pp. 40 ~ 41



## ABSTRACT

### "SOVIET STRATEGY IN THE ASIAN THIRD WORLD"

Viewing Soviet behaviors in the Asian Third World, the years of seventies have witnessed Moscow's paving the way for increased involvement in this region's politico-military affairs. A long disputed series of military clashes along the Vietnamese-Cambodian border since Hanoi's victory over Saigon in 1975 finally entailed the Vietnamese invasion of Cambodia (Kampuchea) at the end of 1977. The war quickly drew a Sino-Soviet opposition to "regional hegemony" and the consequence of these alignments over the Kampuchean issue became to be known as "a Sino-Soviet War by Proxy."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created by continued Sino-Soviet tension and revalry, some marginal changes in the contours of Asian relationships could be conceivable. The highlighted Soviet activities in Asia could therefore affect the future policy relationships among the many Asian remland countries.

Against these background of the Asian Third World,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two aspects of the Soviet strategy,

viewed from the Soviet behaviors in (1) an Asian Collective System as a Soviet proposal and (2) the presence of the Soviet Pacific Fleet in the region. The Soviet proposed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may be interpreted as Moscow's intensified effort to make a political gesture toward all non-Communist states of Asia. In terms of military posture, the Soviet Pacific Fleet's extended activities are designed in part to let others know that the Soviet Union is an "Asian Power."

The Soviet idea of the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a number of reasons by Western and Chinese analysts:

- (1) The Soviets are trying to overstep the Asian threshold;
- (2) They are plotting to fill the power vacuum;
- (3) They are attempting strategically to surround China; and,
- (4) They are seeking to hold the spheres of influence.

The Soviets have, in turn, categorically refuted these charges by saying that:

- (1) The USSR is an Asian Power;
- (2) Asia is inhabited by regional powers of themselves;
- (3) China is invited as a member of the system; and
- (4) The USSR seeks no hegemony over Asia.

Moscow has over the years consistently been claiming that the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designed as a "boundary separating the forces of peace and progress" from those of "aggression and reaction." According to the Soviets, those who belong to the aggressive forces opposed the Soviet-sponsored system, and the Soviets labelled the Chinese as the "reactionary forces bent on aggression."

The proposed system, as it has evolved, would have served between the USSR's Asian objectives including promoting a closer tie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re was little evidence to show an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them with regard to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e Soviet commentators have repeatedly cited Mongolian support of the proposal, but not a single reference has been positively made to north Korea. In fact, the Soviets might have found it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n support for the proposed system, because north Korean support for the system would have neutralized its policy of unification by force.

If the Soviet proposal were truly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membership to include "all peace-loving states of Asia," Moscow should have extended its initiative to South

Korea. However, the Soviet Union seemingly has deliberately avoided approaching South Korea for any bilateral contact.

The Soviets so far have limited their contacts with South Korea to multilateral events of a non-political nature. In order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eoul and Moscow, it is now up to the Soviets' responses to Seoul's open-door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Soviet Pacific Fleet, the Soviet leaders make no secret of their conviction that their growing seapower will play a decisive part in bringing about what Leonid Brezhnev calls, "the global triumph of socialism," i.e., Soviet world domination. According to Admiral Gorshkov, current world developments in the era of detente are characterized by "fundamental changes in the balance of forces in favor of socialism," toward the USSR. In terms of seapower superiority, the almost inevitable presence of the Soviet Pacific Fleet will impose additional danger for the U.S. and its allies in the area. Since the June war of 1967 in the Middle East, the Soviets have never hesitated to resort to such a military diplomacy of "showing the flag."

The Soviet naval presence in the Korean Japanese waters

is the most dynamic and versatile instrument of the Soviet foreign policy in this region. This indicates that, in the near future, the region is most likely to be militarized. The navalized northeast Pacific is bound to invite a tense situation. That is to say, the Soviet naval presence can be politically misleading. Any permanent forward deployment of the Soviet Pacific Fleet beyond the Korean Strait must therefore be an important common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they must keep that vital sea lane open. The Soviet Pacific Fleet since 1975 has been free to use the Cam Ranh Bay of Vietnam. According to unconfirmed sources, Moscow has also sought additional naval bases and the right to make port-calls from western Samoa, Tonga Island,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Singapore. There is a rumor that even the Taiwan government was asked to provide "naval anchors" for the Soviet Pacific Fleet in 1978. In conclusion, it is recalled tha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Middle East's annual oil production has to traverse the Indian Ocean to reach the industrial economies of the Western world. And more than 90 percent of Japan's and Korea's requirements of such energy and other strategic resources depend

on the sea lane. Perhaps the United States may have to rely on the Chinese to keep the Soviets "at home" in the north of the Korean Strait.

Otherwise, the United States may have to increase its naval forces including additional bases in Alaska or South Korea that would pose a strong political overtone.